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53호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뉴스]
박 대통령
선진국·개도국
입장 중재 나선다
02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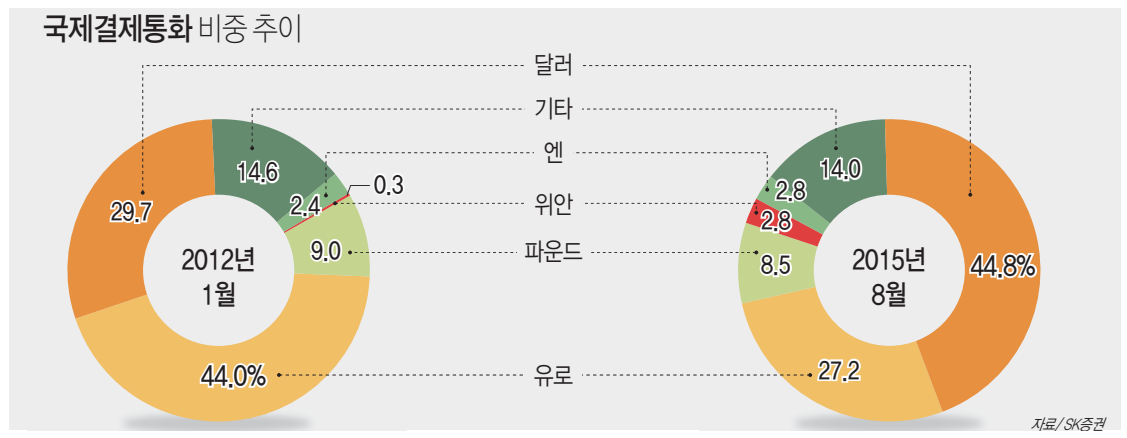
코스피 1991.97 (-37.02)
코스닥 688.38 (-5.83)
금리(국고채 3년) 1.79 (-0.01)
환율(원·달러) 1158.30 (+2.30) 〈22일〉

지구촌 경제 뒤흔드는 차이나파워 2제

FTA 확장·기축통화 도전… '금융굴기' 스타트

지구촌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으로 지금까지 총 6건의 FTA를 체결하고, 자국 통화의 저변확대에 나선 나라. 중국에 대한 얘기다. 한중FTA로 경제시장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을 목표로 세계 경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중국 스스로 '차이나 파워'를 현실화 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3개부처 관계자들이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FTA 발효… 연간 6조3000억 경제효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 단계 성장
北 경제개방 촉진 '도미노 효과'도 기대

국회가 3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국회 비준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으로 한·중 FTA를 공식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타협점을 찾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FTA 연내 비준이 성사됨에 따라 올해 1차 관세 인하와 내년 1월 1일 2차 인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 FTA 발효 후 10년 내 GDP 0.96% 상승 효과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간 6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늘고 소비자후생도 14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한국 경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FTA 등 양국 경제·외교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중국 변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두 번의 관세…대중국 수출·내수 활력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철폐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하락하고 있는 중국 수출 비중을 다시 증가세로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은 총 1145억6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어들었다.

FTA 연내 발효로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중 FTA 발효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진출 여건 개선 ▲국제 분업 활성화에 다른 상생발전 등 3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꼽고 있다. 관세 철폐 효과는 소비재와 화학업종에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자, 전기, 농식품, 소비재 등에서 비관세 장벽과 벨류체인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 오는 2020년 10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양국은 문화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중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 시장의 개방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경협의 강화는 북한의 경제개방도 촉진하는 '도미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남북, 중국 간 경협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개방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미란 기자 actor@

G2 통화 전쟁… '차이메리카' 시대 균열

中, SDR 편입땐 금융개혁 드라이브 가능성
丑·유럽·제3세계 '위안화 기축통화' 응원

'통화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화 패권을 놓고 맞붙는 주인공은 미국과 중국. 중국이 도전자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금융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차이메리카(China+America)' 시대를 열며 세계 질서를 유지하던 힘의 균형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이제 응급실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글로벌 리더십의 균열은 자칫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두 국가와 밀월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충격파가 예상된다.

◆ 기축통화 도전 vs 위안화 절상 압력

지난 2009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G2(미국·중국) 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끌어올리려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한다. 달러화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체제에 위안화가 대항해 기축통화를 양분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미국이 달러화 보유국으로 발권능력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화 약세를 추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유럽, 제3세계 국가들은 중국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다.

우선 중국은 위안화의 저변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의 힘도 세지기 때문이다. 씨티뱅크 등 각종 해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72개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5조9000억 달러)에서 위안화 비중을 10%까지 늘릴 전망이다. 이를 계산하면 잠재적으로 5000억~6000억 달러(최대 693조원)의 위안화 수요가 발생한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과 미국이 경제패권을 겨루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통화스와프와 직거래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위안화의 사용과 유통을 늘리며 야심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금융시장 개방 압력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안화 수요 늘면 국내 증시 자본이탈"

전문가들은 미·중 간에 벌어질 기축통화 전쟁에 대한 한국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한국 경제는 '바람앞 등잔불'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13%에 달한다.

SDR편입을 계기로 중국은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KDB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SDR 편입은 중국 내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시장 개방은 버블형성과 이후 붕괴라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로 한국 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자본시장이 더욱 개방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위안화 표시자산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래부, 황금주파수 '부분 경매'… 이통사 '쩐의 전쟁'

내년 상반기, 100㎒ 폭 중 20㎒
이용자 보호·투자 연속성 고려
80㎒은 SKT·KT에 재할당키로

정부가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20㎒만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 폭은 내년 상반기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재할당되는 80㎒ 폭은 SK텔레콤과 KT에 40㎒ 폭씩 돌아간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이 40㎒ 폭 중 20㎒ 폭을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나머지 20㎒ 폭을 3세대(3G) 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경매에 부치기로 한 20㎒ 폭은 SK텔레콤이 LTE 용도로 사용하는 대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0㎒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데다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서비스와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해 기존 이통사들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0㎒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의 단절 문제가 없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 폭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매에 부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2.1㎓ 대역 할당 방안과 함께 700㎒ 대역 주파수의 40㎒ 폭, 1.8㎓ 주파수의 20㎒ 폭, 제4이동통신에 우선 배분할 예정인 2.5㎓ 주파수 40㎒ 폭과 2.6㎓ 주파수 20㎒ 폭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경매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2.1㎓대역 주파수의 부분경매안을 발표하자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LTE 사용자들이 쓰는 주파수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SK텔레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파수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선 LG유플러스와 '쩐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경매에 나온 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광대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미래부의 부분 경매안을 반대해 온 SK텔레콤은 난감한 상황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한줄 News

정치·사회·국제

▲
국회 외교통일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 **북한**이 다음 달 남북 당국회담을 앞두고 대남 압박에 나섰다. 내달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1월 30일 '대화 분위기에 과연 어울리는가'라는 논평에서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개선을 어떻게 해서나 차단해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 **경찰**이 11월 30일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한 검거 전담부대 투입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 단체들은 "경찰이 과거의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중국** 증시에서 지난 7월 증시 대폭락 이후 중단됐던 기업공개(IPO)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번에 10개 기업의 IPO가 재개될 경우 약 1조1000억 위안(약 180조원)의 유동자금이 묶여 시장 유동성 측면의 충격이 비교적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

▲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20㎒만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에 경매에 부치기로 한 20㎒ 폭은 SK텔레콤이 LTE 용도로 사용하는 대역으로, 이같은 미래부의 발표 이후 이동통신3사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2개월 연속 판매 상승세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 10월 중국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4.7% 증가한 15만6575대를 판매했다.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과 비교해 판매가 증가한 셈이다.

▲
르노삼성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5 디젤(4WD RE)은 품질·정숙성·내구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르노삼성의 SUV 맏형 QM5는 지난 10월 판매가 전월 대비 7.4% 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최종 선정됐지만 '반쪽짜리 출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에 따라 두 컨소시엄 모두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 **BNK금융지주**는 올해 총자산 100조원 달성, 상반기 순이익 3194억원 실현이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해당 지역을 넘어 국내외로 영업 전선을 확장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 대우건설의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 계룡건설의 '초곡 리슈빌' 등은 **남향 아파트**란 프리미엄에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남향은 여름에 햇볕이 적게 들어와 시원하고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따뜻해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유통·라이프

▲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아이(I)뱅크 컨소시엄**이 내년을 기약했다.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 SK텔레콤, BGF리테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인터넷전문은행과 편의점을 융합한 새 모델로 인가를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다.

▲
삼성물산의 남성복 브랜드 '준지(Juun.J)'의 **정욱준** 상무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삐띠워모의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청받았다. 삼성물산은 준지가 글로벌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
3년 5개월 만에 7집 정규 음반으로 **싸이**가 돌아왔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21)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 윤종원 주OECD대사 등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서 기조연설

선진국·개도국 입장 중재 나선다

리더십 통한 선도역할 요청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프랑스와 체코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정상회의 1세션에서 열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 노력을 설명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과 재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여명 이상이 모였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에 나선 것은 신(新)기후변화체제의 확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국내법을 통한 자율적인 이행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과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선진·개도국 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에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온난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개도국에는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과 기여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확충 방안을 COP21 합의사항에 반영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개도국의 녹색성장 촉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며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GCF, GGGI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우리의 성공사례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개도국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사업인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일본·인도 등 법인세 인하 가세… 경제살리기 안간힘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日, 30%대서 20%로 추진
아일랜드도 세율 6.25%로

일본, 인도,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미국, 영국 등 30여개국도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11월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 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667조 원) 목표를 정했다.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대두됐다. 법인세 인하의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7년 3월 말에 종료하고 저온 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공제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지난 29일 일본 자민당 60주년을 맞아 아베 신조 총리(가운데)와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 정책인 '아베 노믹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일랜드도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내년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른바 '지식개발 상자'라고 불리는 정책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었다. 이어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한국 역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췄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아직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3.4%로 OECD의 32개 조사 대상국 중 6위였다. 총 조세 대비 세율도 14%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피해 농·어민 위한 기금 1조원, 10년간 쌓는다

밭 직불금 2배·보전직불금 95%까지 인상 합의
'한·미 FTA 주역' 與김종훈 의원 "너무 내줬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11월 30일까지 여야는 닷새간 롤러코스터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26일 밤부터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 장관인 산업통상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협상레벨을 높였다.

당초 정부·여당이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한 비준안 통과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은 불발로 끝났고, 27일마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시점이었다. 협상 진행 중에 내용이 유출되면서 결렬된 전례를 의식한 여야는 협상 장소를 국회가 아닌 서울 시내 호텔을 포함해 몇 군데로 옮겨가면서 협상하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보안 속에 대좌를 이어갔다.

첫날 협상에서 일단 비준안의 쟁점을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의 규모 등 4~5개로 좁혔지만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2차 데드라인'이었던 27일 오전 7시께도 협상이 재개돼 전날 밤 자정 가까이 협상했던 여야 원내지도부와 최 경제부총리가 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났다.

이후 여야는 30일 오전 외교통일위, 오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합의문을 내놔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출국을 앞두고 24일 국무회의 석상과 27일 공개 발언을 통해 재차 한·중 FTA 처리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한 것도 협상 속도를 재촉하는 데 작용했다.

이렇게 여야간 핵심 쟁점을 좁히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새정치연합이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다른 안건까지 제시함에 따라 협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법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과의 연계를 아예 공식화했다. 지난 주말 각각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9일 일요일 막바지 협상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 재개와 중단을 거듭해야만 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경우 연계전략으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붙잡긴 했지만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뒤집어써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전방위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었다. 게다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외통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며 압박했다. 뿐만아니라 야당이 자칫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새누리당으로서도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정기국회 동안 계류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법과 새누리당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에 물꼬를 트게 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것을 요구,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29일 자정을 넘기면서 무역이득공유제는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2배 이상, 피해보전직불금도 95%까지 인상키로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30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르면서 내용상 너무 후퇴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FTA 체결의 주역이었던 김종훈 의원은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준조세 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면 FTA는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합의한 게 사실이라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무역이득공유제 준조세 될라" 이중과세 논란

일부 의원·재계 반발 조짐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반대 농민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한중FTA 국회비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에 합의한 데 대해 일부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 농어촌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야당이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하는 것이 시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이 같은 제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한·중FTA 대비 여야정협의체는 11월 30일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애초 특정 산업의 이익을 부담금이나 조세 방식으로 환수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해당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 내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또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야정의 이 같은 피해보전 대책이 시장질서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자율이란 이름으로 기업으로부터 준조세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들면 FTA는 하나마나"라면서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에는 국민정신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의 'FTA 상생기금' 조성 움직임에 재계도 "준조세"라며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이득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어려운데다 민간기업의 이득을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 반발을 고려해 '자발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된 조세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FTA 발효에 따른 자발적 기부금이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이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사례에서도 이득공유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은 피해 산업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나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농업 정책 내에세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웃는 온라인몰 "큰 시장 열렸다"

中 역직구 시장 집중 공략
화장품·김치제조사 등도 관세·규제완화 기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통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11월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몰과 소셜커머스, 화장품, 유아용품업종 등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몰은 기대가 큰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미 중국 고객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마켓은 이미 중국어 서비스를 도입했고 GS홈쇼핑과 11번가도 중문 홈페이지를 곧 오픈한다. GS홈쇼핑과 11번가는 이르면 내년 초 중국인 전용 쇼핑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위메프도 지난해 말에 중국 역직구 사이트를 오픈하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화장품·패션 상품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의 역직구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유아용품업계는 중국의 2자녀 허용 소식에 이은 겹호재가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산 유아용품에 열광하는 시장이다.

광군절 하루동안 국내 유모차 브랜드 페도라가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 분유 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중국에서만 400억 원어치의 분유를 판 매일유업은 한·중 FTA로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미미한 일동후디스도 분유 외에 치료식, 실버식까지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화장품도 관세 인하 효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관세 외적인 규제가 예상외의 복병이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상관없이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대단하다. 관세보다 제품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신속하게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점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치제조사들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수출을 위한 규제 해소에 합의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유통기한이 30일에 불과하다. 중국은 일반식품의 통관에 기본적으로 9일 이상 소요된다. 김치를 일반식품으로 분류할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선식품으로 변경하면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치제조사들은 이미 중국산 감치가 생산되고 있는만큼 국내 김치 수출이 가능해지면 프리미엄 전략으로 상류층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가공식품과 공산품분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카카오톡’ vs ‘편의점 동맹’… 승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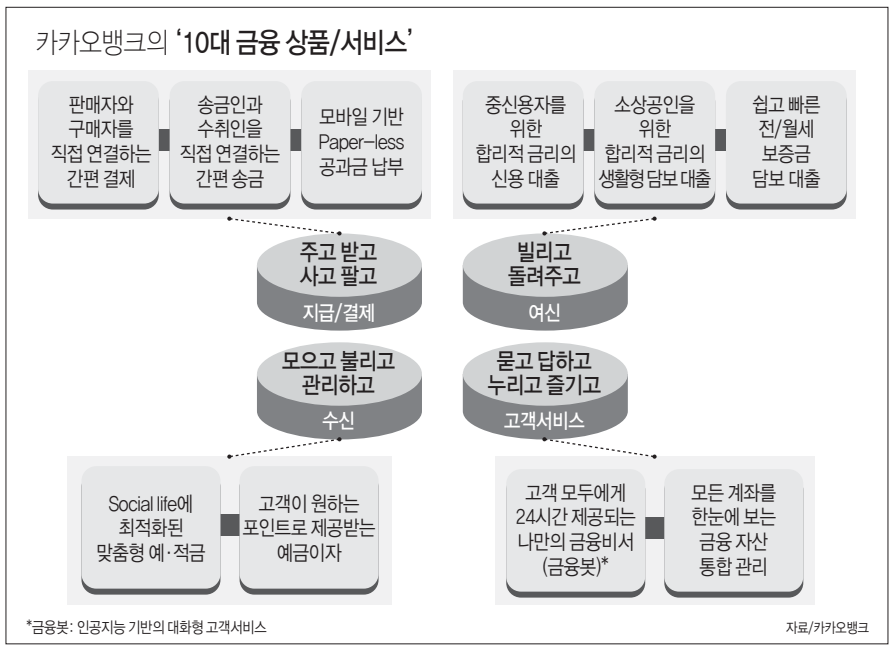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K뱅크〉

고객 접점 강화 금융서비스 제공
참여기업 시너지 극대화 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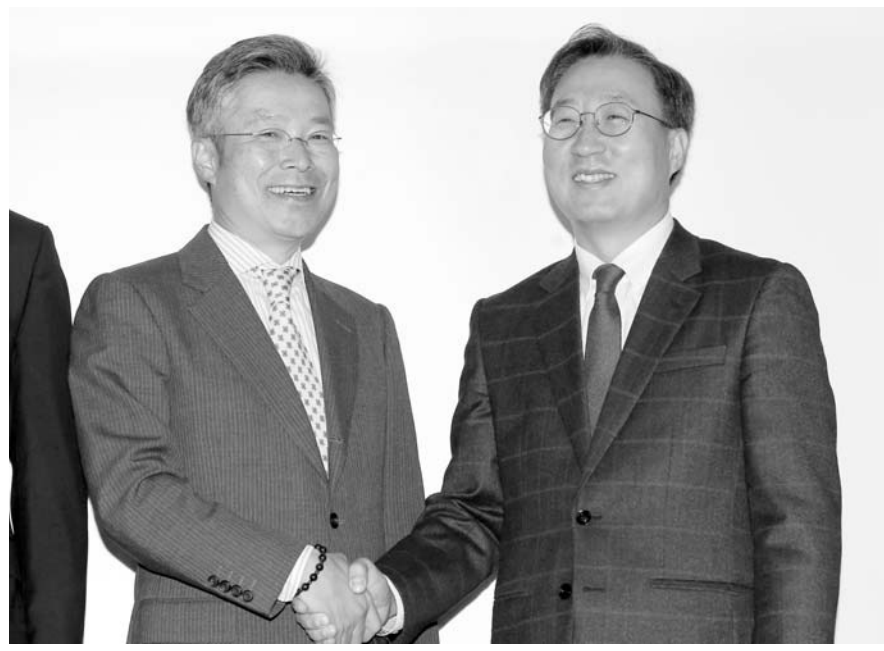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은행과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빅데이터 등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한 금융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또 컨소시엄 내 참여기업의 장점을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업모델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색깔은 달랐다. 카카오은행은 국민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주무기로 삼았다. K뱅크는 편의점· 공중전화 등 오프라인 접점을 이용한 영업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10면·기자수첩 17면〉



카카오은행은 3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하는 채팅앱인 카카오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의 윤호영 카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오른쪽)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의 김인회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내세우는 최대 무기는 38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은행은 3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하는 채팅앱인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은행들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금리추가 혜택을 이용해 고비용 영업·마케팅에 의존한다면, 카카오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편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간 단계의 유통 부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은행 측은 ‘앱투앱결제 방식’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면 밴(VAN), 카드사 등의 수수료를 판매자와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투앱결제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카카오톡과 연동해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강점이다. 공과금도 카카오톡으로 청구받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여신 부분에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중금리 시장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는 활동 고객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 등의 데이터, 모바일·온라인 활동 데이터에다 카톡, 카카오스토리, 다음검색, 샵검색 등을 이용한 카카오뱅크만의 추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편의점·공중전화 활용한 K뱅크

K뱅크는 혁신적 사업모델로 비대면 인증과 빅데이터 신용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예금·대출상품 등을 내세운다. 특히 온라인에만 국한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접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K뱅크의 계획이다.

모바일과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 외에 GS리테일의 편의점 1000개 점포, 우리은행의 7000곳 ATM, KT의 1000여 개 공중전화 박스 등을 우선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동네 ATM’을 고객접점으로 삼아 인증과 계좌개설 등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재확인했다.

고객 접점으로는 KT의 대리점과 인터넷TV(IPTV)도 주요 채널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뱅크 컨소시엄 TF장인 김인회 전무는 “모든 고객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고객접점이 적다는 점에서 불리한데, 우리는 편의점·우리은행·공중전화 등 2만3000개에 이르는 ATM 접점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전국 방방곡곡에 ATM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KT가 보유한 전국 7만개 공중전화부스에는 전력선과 인터넷이 깔려 있어 ATM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접점은 예금상품의 다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과 예금을 결합해 금리 외에도 음성·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해 콘텐츠 이자로 올레TV의 VOD서비스나 최신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뱅크는 또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이력만이 아니라 주주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분화한 평가모형을 구축,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서 2000만명의 고객에게 10%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경쟁력 확인… 내년에 재도전”

‘고배’ 아이뱅크 컨소시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아이(I)뱅크컨소시엄이 재도전의 의지를 밝혔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인터파크는 탈락 후 내년 재도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BGF리테일도 내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범주 넓힌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설립 자본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인터파크가 출자할 계획이었다. 이 외 인프라확보 등의 다양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가 쉽게 인터넷은행을 포기 못하는 이유다.

인터파크도 11월 30일 “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준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I뱅크컨소시엄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되면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판단해 인터파크를 탈락시켰다.

이에 인터파크측은 내년에는 일반적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등 컨소시엄 참여사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신용을 쌓은 자영업자 개념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I뱅크는 최근 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인터파크 한 관계자는 “I뱅크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해왔다.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고 2차인가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확인했다

BGF리테일도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재도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대대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전개·보완해 인터넷전문은행 유치에 재도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BGF리테일은인터넷전문은행과 편의점을 융합한 신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9000여 개에 달하는 편의점에서 I뱅크의 인터넷은행 업무를 보게 함으로 인프라면에서 카카오톡 다음가는 규모를 자랑했다. 오프라인 측에서는 당연 후보자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지난 6월 CD·ATM 자동화기기 관리 기업인 BGF캐시넷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켜 CD·ATM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 연계 사업도 수월하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편의점에 ‘생활서비스 존(ZONE)’을 별도로 구성해 은행보다 효율적인 금융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또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편의점의 특성을 이용 고객들이 언제라도 편의점에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BGF리테일은 총 1만대의 CD·ATM기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에 편의점 인프라의 가치와 중용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시장의 평가를 받은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편의점은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하여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멀티생활서비스 채널로써 일체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minus@

닻 올린 인터넷 전문은행… ‘반쪽 출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숙제로
개정안 무산땐 2차 차질 불가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이끄는 K뱅크가 선정됐다. 사진은 제주 카카오 본사(왼쪽)와 서울 KT 사옥. /연합뉴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최종 선정됐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가 숙제로 떠올랐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출발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월 30일 금융권에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반쪽짜리 출발’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 컨소시엄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원 중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5조)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10%의 지분을 가진 카카오가 아닌 5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뱅크의 경우 KT가 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각 10%씩 소유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누가 추진 주체인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투자나 추가 증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T는 지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쥐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ICT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혁신적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27일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6월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돌아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고사양게임도 잘 됩니다”… 차세대 게이밍기어 승승장구

〈모니터·노트북〉

고사양 게임들이 늘면서 이들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기기들 역시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PC·관련 시장도 고사양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11월 30일 시장조사기관 존 페디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PC 게임용 하드웨어 시장 규모는 올해 246억 달러에서 매년 약 20억 달러 가량 성장해 2018년에는 300억 달러 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 콘텐츠들이 발전하면서 기존 풀HD(1080p)를 뛰어넘는 높은 해상도와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보다 나은 게임 환경을 원하는 게이머들의 늘면서 침체된 PC 시장에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란 게 존 페디 리서치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 전시회에는 터줏대감인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외에도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게이밍 노트북, 차세대 기어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국내외 게임관련 하드웨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가했다.

고해상도·최신기술 이용한
차세대 게이밍 기어 등장…
침체 늪에 빠진 PC시장 주목

◆“숨은 적들을 찾았다!”

LG전자는 지스타에서 21대 9 비율의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로 게이머의 발길을 붙잡았다. PC게임 ‘파이널판타지14’를 시연하며 일반 16대 9 모니터에서는 잘려서 찾기 어려웠던 숨은 적들까지 찾아내며 승률을 높인 것.

또 고사양 게임 중 찢어짐 없이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되는 프리싱크 기술과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블랙 스태빌라이저 기능, 클릭과 동시에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다이내믹 액션 싱크(DAS)모드 등을 선보이며 게임에 최적화된 모니터임을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에 최적화된 모니터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년비 44%의 매출 신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VR 헤드셋 역시 인기다. 삼성전자가 지난 24일 선보인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는 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인 2000대가 모두 동이 났다.

삼성전자와 미국의 VR 기기 전문업체인 오큘러스가 협력해 개발한 기어 VR는 360 파노라믹 뷰와 96의 넓은 시야각을 지원해 게임 내 가상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조사업체인 주니퍼 리서치는 VR 헤드셋이 2016년 3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해 2020년까지 30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VR 헤드셋이 고사양 게임의 인기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기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스타에서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엔비디아, 넥슨 등이 진화한 VR기기를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노트북에서도 고사양게임 ‘OK’

몇 년 전만 해도 고사양 온라인 PC게임을 노트북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막강한 스펙으로 끊김 없이 게임하는 노트북들이 등장하면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파이널판타지14 코스프레를 한 LG전자 모델들이 21:9 비율의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등 IT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PC제조업체 기가바이트가 선보인 6세대 스카이레이크 CPU를 탑재한 ‘기가바이트 판타소스 P시리즈’는 고사양 최신게임을 즐기기 위한 고성능 노트북이다. 엔비디아 GTX970M, GTX980M 외장그래픽을 채용해 그래픽성능을 높였다. 16GB 메모리와 PCIE X4 M.2 SSD를 이용해 윈도 부팅과 게임 로딩시간을 최소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시장에 4K(UHD) 해상도와 VR 지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PC 시장이 차세대 게이밍 기어의 등장에 힘입어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두산중공업

1000억원 규모 발전소 터빈·발전기 공급 계약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지난 27일 한국중부발전과 약 1000억원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을 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계약식에는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발전안전본부장과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포함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일원에 1000MW급으로 건설되는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오는 2019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지난 4월에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를 수주했으며, 경남고성하이화력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 1000MW 석탄화력 주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레드 포인트-창조경제 제휴 쇼핑몰 오픈 기아자동차가 11월 30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아차의 멤버십 서비스인 ‘기아레드멤버스’의 포인트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레드 포인트-창조경제 제휴 쇼핑몰’을 오픈했다. 기아차 모델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中企공제기금 대출금리 1.05% 인하

중기중앙회

청년 채용땐 우대 금리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달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1.05%포인트 인하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포인트(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포인트, 0.75%포인트를 각각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 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현대모비스, 中 상하이서 ‘과학 꿈나무’ 키운다

소학교 과학동아리 50여명
‘주니어 공학교실’ 수업 진행

현대모비스는 중국 상하이에서 구정(九亭) 소학교 과학동아리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 수업을 진행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은 어린이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재능기부 과학 수업이다. 2005년부터 직원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35개 학교에서 6109명의 어린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제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내 브랜드 경쟁력을 지원하고 공익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던 ‘주니어 공학교실’을 2014년 중국 강소, 올 6월 북경 지역에 이어 이번에 상하이 지역으로 확대했다.

구정 소학교는 상하이 송강구 구정진에 위치해 있으며 첨단 에어백을 생산하는 현지 법인인 ‘상하이모비스’가 인접해 있다. 이번 수업을 위해 상하이모비스에서 직원 30명이 강사로 자원했다.

직원 강사단은 수업에 앞선 사전 교육에서 현대모비스와 한국공학한림원 그리고 한양대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함께 개발한

상해 송강구 구정(九亭) 소학교에서 상해모비스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도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자동차’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 자동차’,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자동차’, ‘차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등 선별된 프로그램에 대해 원리와 이론을 학습하며 강의 스킬에 대한 노하우도 습득했다.

상하이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 담당자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통해 참여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상하이 지역에서 정기 수업을 통해 ‘주니어 공학교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 내 입지 강화에 발맞춰 중국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국내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을 중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누적 5만여 개의 투명우산을 북경, 상하이, 강소, 무석에서 나눴다. /양성운 기자 ysw@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조용함에 놀라고 힘에 놀라고… 넉넉한 공간에 감탄

초보 운전 시승기

르노삼성 'QM5 디젤(4WD RE)'

디젤 차량 특유의 떨림 없고 '매직 게이트'로 짐 운반 편리

르노삼성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5 디젤(4WD RE)은 품질·정숙성·내구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르노삼성의 SUV 맏형 QM5는 지난 10월 판매가 전월 대비 7.4% 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에서 5785대가 판매됐으며 SU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1만3561대가 판매됐다.

SUV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QM5를 직접 체험해 봤다. 지난 주말 QM5 디젤 2.0 4WD를 타고 여의도를 출발해 양평 국립중미산 자연휴양림을 돌아 수종사를 돌아오는 약 150㎞ 코스를 돌아봤다.

◆안정적 승차감·정숙성

QM5는 정숙성과 뛰어난 파워트레인 성능으로 대표되는 유럽형 디젤2.0dCi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디젤 차량임에도 차량 내부에서 '달달달'하는 디젤 차량 특유의 소음과 떨림을 느낄 수 없었다. 가속페달(엑셀러레이터)과 운전대 반응은 안정적이었다.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도를 느끼지 못했다.

QM5의 힘과 소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 조안면수종사 오르막길로 차를 몰았다. 수종사 가는 길은 가파르기로 소문났지만 성인 5명을 태우고도 오르막길에서 뒤로 밀리지 않았다. 또 큰 엔진소음을 내지 않고 2㎞ 가량 굽이굽이 전개된 오르막길을 안정감있게 돌아올라갔다.

◆연비 효율성 '우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비다. QM5의 최고출력은 3750rpm에서 173마력이다. QM5의 배기량은 1995cc이고 디젤 엔진이 장착돼 있으며 2륜과 4륜 두가지 모델 중에서 4륜 모델의 실연비를 측정해 보았다.

실연비 측정을 위해 주행시 안전운전을 기본으로 대부분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했으며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인 5명이 탑승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서울-양평 왕복 150㎞가량 평균속도 80㎞로 주행을 마친 후 트립에 표시된 연비는 약 10.6㎞/L(공인연비 11.4㎞/L). 비교적 만족할 수준의 연비를 기록했다. QM5의 공인연비는 도심에서 11.4㎞/L, 고속주행시는 15.0㎞/L다.

◆뛰어난 공간 효율성

QM5는 자동차 이용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QM5는 매직 게이트(위 아래로 열리는 트렁크도어)를 적용해 부피가 큰 짐도 편리하게 싣고 내릴 수 있다. 또 180도로 펼쳐지는 풀 플랫 2열 시트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평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기자의 취향에 맞춰 자전거를 실어봤다. 자전거 캐리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나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에 의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QM5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2열 시트를 접은 뒤 자전거를 적재한 결과 4대까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 만약 3명이 자전거를 적재하고 QM5를 이용할 경우 2열 시트 한쪽만 접은 뒤 자전거 3대와 성인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

특히 매직 게이트를 적용했다는 점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한 몫 했다. 이 외에도 유모차나 보드 등을 적재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QM5는 ▲디젤 2.0 2WD 2930만원 ▲디젤 2.0 4WD 3120만원 ▲가솔린 2.0 2WD 2270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연말엔 中 점유율 9% 기대"

10월 판매량 15만6575대로 3위 기록

현대자동차는 11월 20일 '2015 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중국형 신형 아반떼(현지명:링동)와 중국형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2개월 연속 판매 상승세를 기록했다.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 10월 중국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4.7% 증가한 15만6575대를 판매했다.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과 비교해 판매가 증가한 셈이다. 시장점유율은 8.9%로 폴크스바겐(17.4%), GM(12.3%)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뒤를 이어 닛산(6.0%), 도요타(5.6%), 혼다(4.9%), 포드(4.6%), 푸조·시트로앵(3.8%) 등이 시장을 점유했다.

올해 경쟁 업체의 파격 할인과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막혀 지난 6월 7.2%까지 떨어졌던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7월과 8월 7.5%를 기록한 뒤 9월 8.4%, 10월 8.9%로 상승하고 있어 연말에는 9%를 돌파할 가능성도 보인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사업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현지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8월 담도굉 부사장 체제로 중국 사업 경영진 체제를 구축했지만 지난달 다시 김태윤 사장 체제로 새로운 진용을 꾸렸다.

또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5 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중국형 신형 아반떼(현지명:링동)와 중국형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중국형 신형 아반떼와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내년 상반기 중국 현지에서 본격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중국형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우 2.0 직분사(GDI)'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탑재해 까다로워진 중국 연비 규제에 맞추는 등 경쟁력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구강검진

치아가 늘 신경쓰였는데
구강검진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암검진

나이가 들면서
암이 걱정이었는데
암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니 걱정 없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신경쓰였는데,
영유아 건강검진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일반건강검진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이 늘 걱정이었는데
일반건강검진 덕에
한시름 놨네요

생애 주기 별
맞춤형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이
책임집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인생의 전환기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건강체크 하니
속 편합니다!

건강한 삶의 첫 걸음,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하세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24」 : www.minwon.go.kr

국가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발급 · 갱신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비 지원 혜택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단, 1차 검진필수, 암검진방법 절차준수)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18세 이상 암환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고객센터 1577-1000 |

황금주파수 2.1㎓ 대역, 20㎒만 경매

SK텔레콤 발등에 불… 이통사 간 불꽃전쟁 불가피

20㎒ 확보땐 추가장비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 가능

기존 이용중인 SKT만 울상

정부가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20㎒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에 경매에 부치기로 한 20㎒ 폭은 SK텔레콤이 LTE 용도로 사용하는 대역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 이동통신 간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SK텔레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파수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선 KT·LG유플러스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2.1㎓, 왜 '황금주파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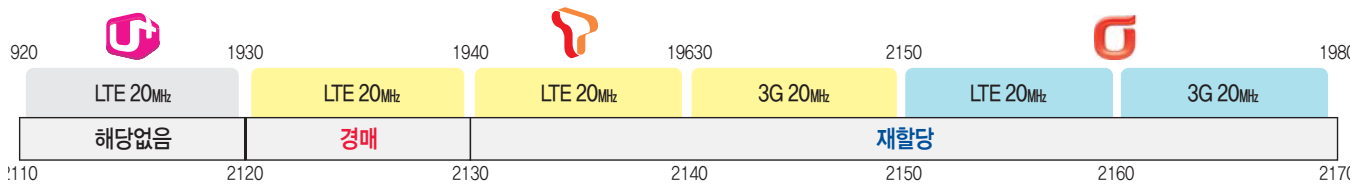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다. 주파수가 통신의 속도나 품질을 결정 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주파수, 즉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수록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더 많은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경매 대상이 된 2.1㎓ 대역은 전체적으로는 대역 폭이 120㎒에 달한다. 실제로는 상향 주파수(단말기에서 기지국) 1920~1980㎒ 대역과 하향 주파수(기지국에서 단말기) 2110~2170㎒ 대역을 가리킨다. 주파수 대역 명칭은 통상 하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가운데 60㎒ 폭(LTE용 40㎒·3G용 20㎒)을 SK텔레콤이 쓰고 있고, KT는 40㎒ 폭(LTE용 20㎒·3G용 20㎒)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TE용 20㎒ 폭밖에 확보하지 못해 이 대역에서 주파수를 가장 적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주파수 중 SK텔레콤과 KT가 쓰는 100㎒ 폭의 이용기간이 내년 12월로 만료되고 그 중 20㎒ 폭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다.

2.1㎓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SK텔레콤과 KT가 이용중인 100㎒ 폭은 '16년 12월 이용만료 (LG유플러스 20㎒폭은 '21년 12월 만료) 자료/각사

2.1㎓ 대역을 둘러싸고 이통사 간 신경전이 뜨거운 이유는 이통3사 중 누구든 이 대역에서 40㎒ 폭을 LTE용으로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장비 투자 없이 속도가 2배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고 있다. KT나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에서 20㎒ 폭만 LTE용으로 쓰고 있지만 경매에서 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40㎒ 폭으로 확대돼 추가 장비 투자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20㎒는 일반적인 20㎒ 주파수보다는 더 가치가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통 3사는 이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영향은

그 동안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LGU플러스는 공정경쟁을 가장 핵심적인 명분으로 삼아 논리 싸움을 벌여왔다.

SK텔레콤은 당초 3G 용도로 쓰던 2.1㎓를 LTE용으로 전환하면서 장비 투자가 이뤄졌고, 이 대역을 활용해 이미 LTE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0㎒ 폭을 모두 재할당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자원의 공정한 활용과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미래부의 결정은 이 두 가지 주장 사이의 절충점인 셈이다. 특히 3G 서비스는 유일하게 2.1㎓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3G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이 대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LTE용으로 쓰이는 40㎒(SK텔레콤·KT 20㎒씩)도 투자·서비스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쓰는 20㎒는 경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현재 주어진 주파수로도 아직은 몇 년 더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SK텔레콤이 2.1㎓ 대역에서 20㎒를 잃는다 해도 내년 상반기 이뤄질 주파수 경매에서 확보한 다른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1㎓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새 주파수는 2017년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단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제주도 여행정보, T맵으로 만나세요"

SK플래닛-제주관광協 협력

관광지·렌터카·숙박 등 제공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 렌터카 등 여행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SK플래닛은 제주도 내 숙박, 렌터카, 음식점, 기념품가게 등 다양한 업체 정보와 주요 관광지의 할인혜택 정보들을 T맵을 통해 제공하게 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T맵을 켜고 목적지를 검색하면 주변 추천 관광지와 함께 주변 매장들의 정보가 노출되고 제주여행포털 '하이제주'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 관광지 정보나 제휴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제주관광협회가 수집한 실속있는 여행 정보만을 엄선해 제주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자주 찾는 관광객에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제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SK플래닛 측은 전했다.

SK플래닛이 제주관광협회와 협력으로 T맵을 통해 제주도 주요 관광지 정보와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SK플래닛

제주 관광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SK플래닛은 제주관광협회가 제공한 최신 관광정보 외에도 T맵의 빅데이타를 기반으로 한 제주도 내 인기 목적지와 계절별, 테마별 인기 관광정보를 분석해 함께 제공한다.

여기에 SK플래닛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T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렌터카 업체에 스마트폰 거치대와 차량용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기어 VR'로 T익스프레스 체험해볼까

삼성전자-에버랜드

홍대거리서 가상현실체험 행사

이달 20일까지 주말마다 진행

3D게임 등 특화 콘텐츠 시연도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헤드셋 최신작 '기어 VR'의 출시를 기념해 에버랜드와 함께 이색적인 가상현실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20일까지 매 주말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4D 체험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버스 안에서 기어 VR를 통해 에버랜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호러메이즈'와 'T익스프레스'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별도로 마련된 체험존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특화 콘텐츠 시연도 함께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CJ E&M의 Mnet '엠카운트다운' 공연을 '기어 VR'를 통해 360° 로 경험할 수 있으며, 3D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헤드셋 최신작 '기어 VR'의 출시를 기념해 에버랜드와 함께 이색적인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마포구에 홍대 상상마당에서 '기어 VR' 4D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실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사 첫 주말에는 4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체험존을 방문해 '기어 VR'의 생생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경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어 VR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특화 콘텐츠들을 소비자들이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어 VR 에버랜드 4D 체험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온라인 웹사이트(www.samsung.com/sec/galaxynote5/gearv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스마트 지갑 '클립', 오프라인 결제 지원

KT

BC페이·엠틱 결제기능 탑재

전국 7만8000개 매장서 가능

KT가 스마트지갑 어플리케이션(앱) '클립'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KT는 클립의 기존 기능에 오프라인 결제를 추가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탑재된 결제 기능은 BC카드의 신규 간편결제 서비스 'BC페이'와 KG모빌리언스의 휴대폰 소액결제 '엠틱'이다. 이로써 클립은 전국 7만8000여개 가맹점에서 NFC 태그나 바코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앱 안에서 BC페이와 엠틱으로 결제 가능한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클립은 오프라인 매장의 카드별 혜택과 멤버십, 쿠폰 할인 정보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KT는 스마트지갑 앱 '클립'에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KT

KT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에 NFC 오프라인 결제 기능이 탑재된 것은 클립이 처음"이라며 "이용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자신의 신용 및 체크카드를 추천 받고, 각종 멤버십이나 할인정보가 포함된 혜택을 한 화면에서 본 뒤, 결제까지 해결하는 논스톱 카드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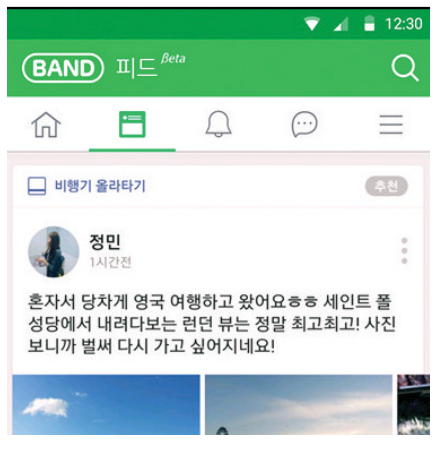
네이버 밴드 , 이용자 취향따라 정보보낸다

네이버 '피드' 도입한 업데이트 진행

멤버간 소통 활성화 기대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은 그룹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에 이용자의 사용 패턴과 활동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적용한 '피드' 베타 기능을 도입해 5.0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피드는 게시글이 올라간 시간, 댓글, 좋아요 등과 이용자의 활동성, 성·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게시글이나 추천 밴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피드를 통해서는 개별 밴드에 일일히 들어가지 않아도, 게시글의 이미지 썸네일과 함께 댓글쓰기나 공유하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피드 메뉴에서 가입한 밴드가 많은 헤비 유저의 경우 밴드에 올라온 인기 게시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밴드에 가입한지 얼마 안된 초기 이용자에게는 이용자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새로운 밴드모임과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모바일은 지난 3월 주제형 밴드로 서비스를 확장한 이후 이용자들이 관심사 기반으로 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1인 평균 가입 밴드 수는 35% 증가했고, 월 총 체류시간 역시 25% 늘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주제형 밴드도 빠른 속도로 개설돼, 누적 총 밴드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는 "그룹형 SNS에서 피드 메뉴를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피드 메뉴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멤버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총자산 100조원시대… 상반기엔 3194억 순익 '대박'

지방금융지주 돋보기

❶ BNK 금융지주

경남은행 인수 기반 삼아 금융지주 국내 5위 다지기

부실채권 축소 내실화 다지고 국내외망 넓혀 미래지향 가속

지방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만 영업기반을 뒀던 지방은행들은 손을 맞잡고 국내외로 영업 전선을 확장하는 추세다. 수익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3대 지방지주 BNK·DGB·JB금융그룹의 성장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BNK금융지주는 올해 총자산 100조원을 달성하며 대형 금융지주사로 올라 섰다. 순이익도 올 상반기에만 31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나 증가하는 등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지주 최초로 국내 주요 금융지주 5위권에 발을 들여놓은 BNK지주.

BNK지주의 전신인 부산은행은 지난 1967년 자본금 3억원, 임직원 92명으로 출발했다. 금융업무의 지역분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10개의 지방은행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 등이 앞다퉈 지주체제로 전환하던 2000년대 후반, 부산은행은 급물살을 타고 제일먼저 지주전환을 시도했다.

BNK지주 관계자는 "당시 시중은행들이 제2금융권 자회사를 편입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추세였다"며 "금융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편 서비스에서 나아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신의 한수' 경남은행을 얻기까지

'BS금융지주(BNK지주의 옛 명칭)'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부산은행을 비롯해 BS투자증권, BS캐피탈, 부산신용정보를 자회사로 두고 출범했다. 국내 지방은행 중에는 최초의 지주회사였다. 당시 BS지주는 출범 직후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시중은행 지주사와 동일한 최고신용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대외적으로도 양호한 재무상태를 인정받으며 산뜻한 출발을 했지만 몸집 부풀리기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경남은행 인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분리매각되는 경남은행 인수는 DGB금융지주와 2파전이었다. 2012년 말 기준 BS지주와 DGB지주의 총자산은 각각 40조원, 34조원 수준으로 총자산 29조원의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자산규모를 60조 안팎까지 불릴 수 있었다. 영남권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지주는 격돌했다.

BNK금융그룹 본점 외관.

그러던 중 2013년 6월 이장호 BS지주 회장의 사퇴 파문이 일었다. 금융당국이 내부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한 것. 결국 이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성세환 부산은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사이 경남은행 인수 경쟁은 4파전으로 번졌다. 지역상공인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와 기업은행까지 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경남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반발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와 존재 목적에 따라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달라"며 BS지주에게 경남은행을 넘길 경우 즉각 총파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 민심도 등을 돌릴 무렵 BS지주와 경남은행 노조는 극적으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BS지주는 우리금융의 매각 연기와 면세 조세특례법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1조2300억원에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방지주 1위로 '우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금융경쟁 속 BNK지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하며 몸집 부풀리기에 박차를 가해 온 BNK지주는 이제 그룹 내 수익과 비용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래 지향적인 경영체제 확립에 나섰다.

BNK지주 관계자는 "올해는 부실채권을 축소하고 우량 대출을 운영하는 등 규모만 키우는 것보다는 내실화를 다지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48년 전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한 부산은행은 지난 2010년 순이익만 33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한 2011년 순이익이 4003억원 증가했으나 2012년 3611억원, 2013년에는 3045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BNK지주는 순익 감소 폭이 적은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시켰다.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경기도에 지방은행 점포 개점을 금지했던 금융위원회의 규제가 풀리자 BNK지주의 자회사 부산은행은 경기도에 1개의 점포를 냈다. 또한 서울 4곳, 인천 1곳 포함, 국내 272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경남은행은 서울(3곳)을 제외한 수도권 진출이 없으나 국내 총 162개의 점포 영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일사천리다. 2012년 12월 부산은행은 최초 해외 지점인 중국 칭다오 지점을 열었으며, BNK캐피탈이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 1곳씩 총 3곳에서 영업망을 확보했다.

BNK관계자는 "현재 2016년도 종합경영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성세환 BNK회장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밝힌 '2020년 아시아 30대, 글로벌 100대 금융지주 진입'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인니 BME 인수로 글로벌 공략 '한걸음'

신한은행, 현지은행 지분 인수 2020년까지 사업 확장 추진

신한은행은 11월 30일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뱅크 메트로 익스프레스(Bank Metro Express·자카르타 본점, 이하 BME)의 추가 지분을 인수해 98% 가량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40%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5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OJK(OTORITAS JASA KEUANGAN)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은 센트라타마 내셔널 뱅크(Centratama Nasional Bank·수라바야 본점, 이하 CNB)에 대해서도 연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두 은행을 통합 신한인도네시아은행(가칭)을 출범하고 인도네시아 핵심 경제권인 자바섬 전역에 채널을 확보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수년 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인도네시아의 은행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외에서의 진출 노력으로 마침내 숙원사업을 이뤘다.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중장이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미얀마, 인도로 이어지는 주요 동남아 금융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됐으며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이라는 글로벌사업 전략방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BME와 CNB 인수는 신한의 글로벌사업을 한 단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 도약하고자 하는 신한은행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경복궁역 건강기부계단 준공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1월 30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건강기부계단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후원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 서울시 건강증진정책과 박영숙 과장, 경복궁역 백정현 역장(두번째줄 왼쪽부터)이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하나금융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50억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 나눔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11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50억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성금 전달 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과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 네 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현금서비스 한도 채워써도 신용등급엔 변화 없다

신용평가때 '한도소진율' 제외 서비스이용자 70%가 등급 올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지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등급 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할 것이라고 11월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에 낮은 평점을 매겨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9월
현금서비스 이용자	509만명 (19%)	477만명 (18%)	441만명 (17%)	407만명 (16%)	372만명 (14%)
이용금액	72조원	69조원	64조원	60조원	41조원

주) 괄호 안은 신용카드 보유자 2646만명(2015년 9월 기준) 대비 현금서비스 이용자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9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합리적 소비, 카드분실 시 피해 경감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한편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72만명(70%)은 신용평점,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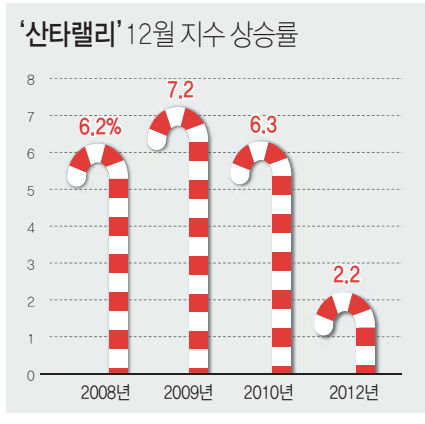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선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산타랠리 글쎄… 대형주 반등 가능성엔 집중을”

유럽 ‘양적 완화’·美 ‘금리 인상’
엇갈린 통화정책 기대반 우려반

한은, 내년 추가정책 카드 낼수도



올해도 ‘산타랠리’가 가능할까. “글쎄요….”

적잖은 전문가들은 섣불리 답을 내놓지 못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부분 증시에 반영됐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많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의 반등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美 금리 인상 등 변수많은 연말 증시

11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7년 동안 네 번의 산타랠리를 경험했다. 지난 2008년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6.2% 오른 것을 비롯해 2009년(7.2%) 2010년(6.3%) 2012년(2.2%) 연말에 주가가 상승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심했던 2011년과 삼성전자발 어닝쇼크 위험이 떠오르던 2013년과 2014년에만 ‘연말 특수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동부증권 장화탁 연구원은 “연말엔 유럽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이 물건을 사주는 국면이 예상된다”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연말에 오히려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에 산타 랠리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3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선 예금 금리 인하(현행 -0.2%→-0.3%)를 포함한 추가 양적완화(QE)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지난 12일 유럽 의회 연설에서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지난 20일 연설에서도 유로존 물가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12월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지수(2일)와 고용 동향(4일) 등과 같은 경제 지표는 이달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12월 FOMC 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연준의 경기 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은 12월 2일 발표된다. 미국 경제 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지난 2004년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국내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이번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달러약세와 국제유가 반등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를 눈여겨 볼 것을 권한다.

신한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은 “12월 증시 역시 달러 강세로 외국인 매수가 제한된 환경에서 국내 수급 영향력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대형 자금집행기관의 12월 대형주 매수”라고 말했다.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

채권시장은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예년의 연말 분위기와는 다르게 올해는 연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하락을 예상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월 이후 국고3년 금리는 1.55%에서 1.80%까지, 국고10년 금리는 2.05%에서 2.30%까지 높아졌다. 회사채 AA-3년 금리와 국고3년과의 거리(스프레드)도 30bp(1bp=0.01%포인트)에서 55bp까지 확대됐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금리 레벨의 ‘클라이맥스’를 지나고 있으며, 이후 ‘대단원’으로 금리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과거만 못하는데 따른 지적이 많지만 내년도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감소 국면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카드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실시한 정책효과까지 고려해 내년에도 한은이 추가 정책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DB대우證, 인도네시아 ‘세이프 스쿨’ 지원

KDB대우증권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세이프 스쿨’ 지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DB대우증권이 지원하고 있는 ‘세이프 스쿨’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우증권 직원들과 현지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텡가 셀라탄 지역에 위치한 네오나흔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환경보호 관련 기업 주가흐름 잘 살펴야

“내년 성공 투자 12월 준비에 달렸다”

CO_2 감축 협약 美·中 적극 참여 예상

12월은 내년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시기다. 12월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다음달 15~16일(현지 시간)에 있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맞춰져 있다.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6개월 동안의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8월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시장 급락 이후 미국과 한국 시장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반등했다. 하지만 12월 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투자하면 안된다.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7일(한국시간) 오전까지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국가연합(UN) 기후협약 파리 총회는 기존의 도쿄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환경보호 전반의 국제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1, 2위의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된다. 이에 관련 테마 기업을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월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투자는 철저히 업종과 기업 실적에 기반해 할 필요가 있다. 작년 동기 대비 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재, 산업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중 화학, 에너지 업종의 경우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매출액은 줄었지만 양호한 정제마진과 견조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매크로 환경과 유가 및 환율에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실적 개선 추세는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유틸리티의 4·4분기 실적 개선폭은 매우 크지만 요금인상 등 정부 규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백찬규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전략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암’ 나뉜 인터넷은행 관련주

예비인가 기업株는 일제 상승
탈락한 I뱅크측은 주가 급락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갈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1월 30일 증시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4500원(3.88%) 오른 12만6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12.83%까지 급등했다.

코나아이(5.79%) 등 다른 카카오은행 참여 업체들도 동반 강세다.

카카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금융지주는 장 초반 7.66% 상승했으나 장 막판 하락 반전했다.

특히 보안·인증 관련주를 비롯한 중소형 업체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케이뱅크에 속한 다날은 7.83% 상승했다. 다날은 장 초반 24% 가까이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름폭이 제한됐다.

모바일리더(29.88%)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인포바인(5.32%), 브리지텍(4.81%), 한국정보통신(3.75%), KG이니시스(2.88%), 민앤지(1.74%) 등 케이뱅크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케이뱅크를 이끄는 KT는 0.50% 상승하는데 그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에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것”이라며 “새 사업모델 공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해당 종목의 주가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회사 가운데 상장된 중소형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보안·인증 관련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파크(6.17%), 인터파크홀딩스(14.07%)는 급락했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김문호 기자

동부증권, 4일까지 ELS·DLS 등 4종 판매 개시

동부증권은 오는 12월 4일까지 KOSPI 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1종과 최고 연 6%의 수익을 지급하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 1종 등 총 4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671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8%(4·8·12개월), 84%(16·20·24개월), 77%(28·32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6.00%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원금과 18.00%(연 6.00%)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시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문의:고객센터 1588-4200) /김문호 기자

KRX국민행복재단, 사회공헌주간 선포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12월 첫째주(11월 30일~12월 4일)를 ‘2015년 KRX 사회공헌주간’으로 선포하고 11월 30일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배식봉사활동에 앞서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국거래소

집은 역시 '남향'… 아파트 분양시장 '햇볕전쟁' 치열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해 냉난방·전기료 절감 효과↑

습한 해안도시 '남향' 애착 커 솔 정남향 '포항 초곡 리슈빌' 주말 3일간 2만7000명 발길

계룡건설 초곡 리슈빌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을 둘러보며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계룡건설

"남향이에요?"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방문객이 분양 관계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다. 올 한 해 분양 시장에서는 '햇볕경쟁'이 치열했다. 내 집은 햇볕이 잘 들어야 한다는 수요층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향에 대한 선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포항처럼 해안도시에 거주하는 수요층은 공기가 습해 볕이 잘 드는 남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사는 남현숙(56)씨는 "집은 볕이 잘들어야 한다. 볕 잘드는 집은 잘되는 집이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했다. 특히 포항은 바다가 인접해 습하다. 그래서, 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아파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창포동에 사는 박현화(38)씨는 "애들 키우면서 밝고 환한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볕이 잘 들면 관리비도 적게 든다"면서 "겨울 난방비도 적게 들고 전기요금도 절감되기 때문에 커카는 애들을 생각해서 집을 넓힐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은 볕이 잘들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을 구할 때 층이나 평면구조 못지않게 방향을 따진다. 주택시장에서 집의 방향은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조건 중 하나다. 계절이 다양한 우리나라는 집의 방향에 따라 계절별 일조량이 달라지고 이는 냉난방 비용의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집의 방향 중 햇볕이 잘 드는 남향(南向)집은 3대가 적선(積善)해야만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남향의 하루 중 일조시간은 다른 방향에 비해 적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향 아파트는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 시원하다. 반대로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따뜻하다. 낮에는 채광이 잘돼 조명기구를 덜 사용해도 된다. 이 때문에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높은 청약률을 나타내며 순위내 마감됐으며 3.3㎡당 최대 4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4월 공급한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는 567가구 모집에 3만3194명이 몰리며 평균 58.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대 동탄신도시 공급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이었다.

◆남향 수요 인기 지속

이같은 인기는 연말 공급 물량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계룡건설이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초곡지구 88B 1L에 공급한 '초곡 리슈빌'은 주말 3일간 2만7000명이 다녀갔다. 단지는 전세대 선호도가 높은 정남향 판상형으로 4베이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넓은 동간거리의 단지배치로 일조권과 통풍, 채광도 좋다. 전용면적 84㎡는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평면에 침실붙박이장, 주방팬트리 등의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남향 주택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꼽혀온 데다 최근 건설사가 가구 배치를 많이 하기 위해 정남향보다는 남동, 남서향 위주로 짓는 경우가 왕왕 있다보니 정남향 아파트가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나 어린 아이, 주부 등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남향집이 좋지만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삼성물산, 중동서 올해의 인파르 건설사 선정 삼성물산은 지난 11월 24일 중동 유력 건설전문지 빅 프로젝트(Big Project) ME로부터 '2015 올해의 인프라 건설사'로 선정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제 엔지니어 컨설턴트, 왕립측량사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모여 15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회사와 인물을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아랍에미리트(UAE)원전과 살람지하차도 등 다수의 프로젝트 시공을 통한 중동지역 인프라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물산

"내년 산업계 트렌드 컬러는 황금색"

악조노벨, 컬러 트렌드 발표
컬러 테마는 '룩킹 보쓰 웨이'

악조노벨이 11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내년 디자인·산업계 컬러 트렌드를 분석 제시하는 '컬러퓨처 2016' 행사를 열고, 2016년 대표 트렌드 컬러로 '오커골드(Ochre Gold)'를 선정했다. /악조노벨

내년 주목할 컬러로 황금색(Ochre Gold)이 선정됐다.

글로벌 1위 페인트·코팅제 기업 악조노벨은 11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16 컬러 퓨처(Colour Futures)' 행사를 열고 내년 트렌드 컬러로 황금색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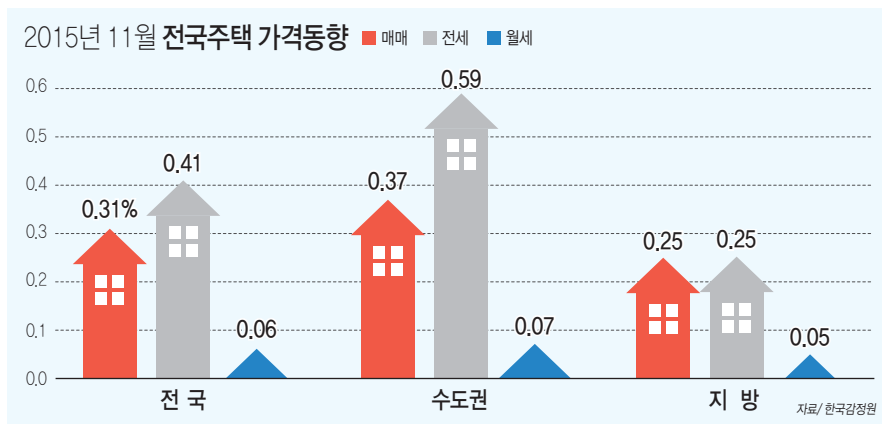
악조노벨이 선정한 내년 트렌드 컬러 '오커 골드'는 황토색(오커)과 금색(골드)이 조화를 이룬다. 악조노벨의 컬러 트렌드 발표 결과는 전 세계 표준 색채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표 트렌드 컬러와 함께 2016년 디자인계를 선도할 컬러 테마와 트렌드도 발표됐다. 악조노벨이 선정한 내년 컬러 테마는 대비되는 것을 융합한 '룩킹 보쓰 웨이'(Looking Both Ways)다. 또 룩킹 보쓰 웨이를 설명하는 4가지 트렌드는 ▲풍부한 과거의 유산을 통해 미래를 구축하라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보완을 통해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라 ▲다른 성질의 대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라 ▲억압하는 시스템에서 자유로이 창조하라 등이다.

악조노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출판은 물론 건축과 인테리어 등 산업계 전반에 중요한 컬러 트렌드 지표가 되고 있는 '컬러퓨처'를 한국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제조업과 IT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에 악조노벨의 컬러퓨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11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 상승세 주춤

매매 0.31%·전세 0.41% 상승 그쳐
공급과잉 우려·이사철 마무리 영향



한국감정원은 11월 30일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평균가격 기준으로 65.9%를 기록하며 10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매매는 0.31%, 전세 0.41%, 월세는 0.06%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매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지만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공급과잉 우려 속에 시장 관망세가 나타나며 거래·문의가 주춤한 상태로 10월 대비 상승폭이 0.02% 포인트 축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37%, 지방은 0.25%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10월 대비 상승지역은 159곳으로 같았고 보합은 2곳에서 0곳으로 감소, 하락은 17곳에서 19곳으로 증가했다.

매매평균가격은 2억4568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4억66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3억3356만원, 지방 1억6622만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7975만원, 연립주택 1억3882만원, 단독주택 2억187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매매전환 실수요 증가와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돼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은 0.59%, 지방은 0.25%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 166→164곳으로 감소하고 보합은 0곳으로 동일, 하락은 12→14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1억6075만원으로 10월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2억9044만원, 수도권 2억1775만원, 지방 1억921만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억9969만원, 연립주택 8952만원, 단독주택 1억711만원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은 지난달 상승폭인 0.06% 수준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월세가 0.06% 하락했고 준월세와 준전세는 각각 0.01%, 0.26% 상승했다. 수도권은 0.07%, 지방은 0.05%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은 126→131곳으로 증가했고 보합은 8→4곳으로 감소, 하락은 44→43곳으로 감소했다.

월세보증금 평균가격은 4633만원으로 10월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억292만원, 수도권 6640만원, 지방 2819만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5746만원, 연립주택 2538만원, 단독주택 3161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25.6%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박상길 기자

한샘몰, 연말까지 책상·의자 싸게 사세요

한샘
총 10종, 50% 할인 이벤트

한샘은 자체운영 쇼핑몰 한샘몰에서 연말까지 책상의자와 책상을 구매할 경우 책상을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10종의 책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책상마다 2~4개의 의자 제품을 선정해 매칭했다.

책장 일체형 '모리', '조이', '지니' 책상은 12만9000원부터, '에디', '샘스틸' 책상은 3만45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에디와 샘스틸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인기가 높아 4종의 높이조절 의자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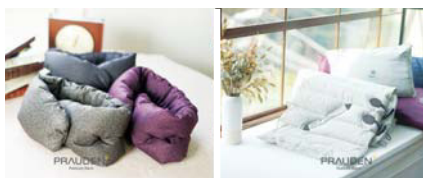
새로 나왔어요

KGC인삼공사 116주년 기념 한정판
‘사랑나눔’ 콘셉트로 건강 선물

KGC인삼공사가 창업 116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4종(사진)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사랑 나눔’을 콘셉트로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 ‘달콤한 마음을 나누다’, ‘건강한 행복을 나누다’, ‘동인비 디퓨져’ 등이다.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은 영국 전통 본차이나 브랜드 로얄알버트와 디자인을 컬래버레이션한 고품격 한정판으로 홍삼정 120g 2병과 50g 1병으로 구성됐다. ‘달콤한 마음을 나누다’와 ‘건강한 행복을 나누다’ 세트는 레네세 캔디와 홍삼쿨, 봉밀절편등을 담았다. ‘동인비 디퓨져’ 세트는 ‘레드진생 디퓨져’와 ‘진생베리 디퓨져’로 제작됐다. /유현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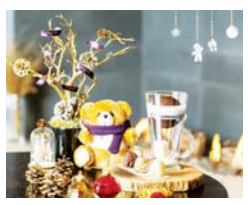


프라우덴 ‘구스 굿즈’ 2종
머플러·숄… 칼바람 완벽 차단

태평양물산의 다운 브랜드 프라우덴이 ‘구스 굿즈 바이 프라우덴’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구스 굿즈는 구스 다운을 활용한 제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출시한 2종은 머플러 형태의 ‘구스카프 클래식’과 어깨에 두르는 숄 형태의 ‘굿숄’이다. 두 제품 모두 구스 솜털 90%, 깃털 10%가 충전됐다. 구스카프 클래식은 다크 브라운, 버건디 와인, 애쉬 블랙 등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굿숄은 애쉬 바닐라, 버건디 와인 두 가지 색상이다. 가격은 각 7만7000원, 11만 원. /유현희 기자

콘래드 서울 ‘크리스마스 패키지’ 2종
새해 소원도 빌고 만찬도 즐기고



콘래드 서울이 2종의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소원도 빌고 콘래드 시그니처 윈터 아이템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브 위시’ 패키지와 객실과 다이닝이 포함된 ‘다인 온 크리스’가 주인공이다. 페스티브 위시는 12월 18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용가능하며 객실과 위시트리 이벤트 참여, 시그니처 핫초콜릿, 조식부페, 콘래드 윈터베어가 제공된다.

가격은 29만5000원. 다인 온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만찬이 포함된다. 가격은 미정. /유현희 기자

나뚜루팝 ‘성탄 케이크·헬로키티 가습기’
싱클컵 사면 가습기 할인 이벤트

아이스크림 카페 나뚜루팝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2종’과 ‘헬로키티 가습기’(사진)를 1일부터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2종은 ‘기프트 하트’와 ‘큐브 스타’로 가격은 각각 2만 4000원, 2만 8000원이다.

이와 함께 나뚜루팝 싱글컵 이상 구매시 앙증맞은 ‘헬로키티 가습기’를 1만 40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레드와 핑크 두 가지 색상이며, 보틀과 컵 타입중 선택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글로벌 매장 확대… 2020년 매출 1000억원”

삼성물산 ‘준지’
세계 최대 남성복 전시회 ‘삐띠워모’
정욱준 상무, 게스트 디자이너 초청
“100년, 200년 지속될 브랜드 창조”

삼성물산의 남성복 브랜드 ‘준지(Juun.J)’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준지는 11월 30일 서울 청담동 비이커 매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내외 백화점에 매장을 추가로 열어 2020년 글로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는 삐띠워모에 정욱준 상무가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청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6 FW 삐띠워모(Pitti Uomo)’에 초청된 것을 발판으로 삼아 2017년에 글로벌 단독 매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삐띠워모 초청은 남성복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디자이너로 인정 받은 것을 뜻한다. 수많은 브랜드와 디자이너 중 게스트 디자이너는 각 부문별 1명만 선정된다.

세계 최대 남성복 전시회인 삐띠워모는 1972년 이탈리아의 민간 패션 기구인 CFMI가 만들었다. 매년 1월과 6월 총 2회 열린다. 톰브라운(2009년), 트루사르디(2011년), 발렌티노(2012년), 겐조(2013년), 디젤(2014년), 제냐(2014년) 등 세계 유명 남성복 브랜드도 삐띠워모에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청된 바 있다. 준지는 2007년 론칭한 이후 파리컬렉션에 18회 참가했다.

정 상무는 “10년 전 디올의 수장 라프시몬스가 게스트 디자이너로 열었던 쇼를 보며 컬렉션을 꿈꿨는데, 현실이 됐다”며 “100년, 200년 영원히 지속될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삼성물산 패션부문 해외상품사업부장은 “준지가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청받은 것은 글로벌 시장이 정 상무를 사업적, 디자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준지는 내년 삐띠워모에서 ‘클래식의 전환’이라는 콘셉트의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중적인 디자인이 아닌 준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으로 세계에 준지를 알린다는 취지다.

정 상무는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컬렉션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중성과 크리에이티브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티브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2008년 SS시즌 파리패션위크 당시 가장 주목받는 6명의 디자이너 중 한명으로 선발된 바 있다. 이후 준지는 2013년 파리컬렉션을 주관하는 파리의상조합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카니예 웨스트, 리한나, 칼 라거펠트, 수지 멘키스 등 해외 유명인사들이 준지의 팬이다.

준지는 지난 2012년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합류한 이후 매년 50% 이상 성장 해왔다. 지난해에는 갤러리아 명품관(WEST 4층)과 롯데본점(5층)에 첫 단독 매장을 열었다. 아울러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홍콩 등 30여개국의 유명 백화점 등에서 1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이탈리아 남성복 박람회 ‘삐띠워모’의 게스트 디자이너로 참석하는 삼성물산 패션사업부의 남성복 브랜드 ‘준지’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정욱준 상무. /삼성물산 패션사업부

伊 해군 시계, 70년 만에 부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11월 30일 이탈리아 시계브랜드 ‘파네라이’의 부티크 오픈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150개 한정 생산된 ‘마레 노스트럼 티타니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마레 노스터럼 티타니오’는 1943년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제작된 시계로 70여년만에 150개 한정판으로 재탄생됐다. ‘마레 노스트럼 티타니오’의 직경은 52㎜이고, 브러시드 티타늄 소재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

이랜드, 킴스클럽서 손 뗀다

공개입찰 매각… 고용승계 보장
글로벌 유통·SPA 확장에 집중

이랜드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중인 킴스클럽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는 킴스클럽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킴스클럽은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흑자 사업부문 중 하나다. 이랜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킴스클럽 매각 후 이랜드는 글로벌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킴스클럽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51개 유통 점포 중 37개점에 입점해 있다. 식료품과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하이퍼 마켓이다.

이랜드는 킴스클럽이 흑자 사업장이지만 대형마트 3강 체제에서 업계 선두 지위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 매각을 결정했다.

이랜드는 대부분의 킴스클럽 매장이 유통 매장의 식품관 개념으로 지하 1~2층에 입점한 형태여서 매각 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랜드는 매각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집에서도 ‘크림 생맥주’ 즐기세요

하이트진로 맥스
가정용 비어서버 ‘크림탑 메이커’ 개발

가정에서도 크림생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맥스가 자체 개발한 가정용 비어서버인 ‘크림탑 메이커’(사진)를 내놨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맥스 크림탑 메이커는 맥스 캔 제품(355·500㎖)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캔 삽입 후 레버를 당기면 좌측 노즐에서 맥주가 나오고 레버를 뒤로 밀면 우측 노즐에서 풍성한 크림탑이 생성되는 구조다. 또한 355㎖ 전용 받침대를 준비해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레버도 본체 윗부분에 설치해 맥주와 크림을 방출하기 편리하게 디자인했다.

맥스 크림탑메이커는 비매품이며, 행사참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며 행사 전용 맥스 6캔(팩) 구입 시 포함된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첨되면 받을 수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지난봄 ‘크림生 올몰트맥주 맥스’로 리뉴얼하며 크림탑이 지켜주는 깊고 풍성한 맛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생맥주 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간편하게 ‘크림生 맥스’를 즐길 수 있도록 크림탑 메이커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CU, 모든 도시락에 ‘햅쌀’ 스티커

연말까지 한시적 부착
묵은쌀 사용 오해 해소

편의점 CU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도시락 상품 전면에 ‘햅쌀 마크’를 부착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간편식품에 묵은쌀이 사용된다는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CU는 충남 공주, 경남 함안, 전북 익산 등 국내산 쌀 중 완전립 90% 이상의 햅쌀만을 사용해 도시락, 주먹밥 등 모든 미반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올 9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햅쌀마크가 부착된 CU의 도시락 상품들. /BGF리테일

‘창조산업개발’ 이끌 신지식인 찾는다

2회 대한민국창조지식인대상 오는 20일까지 수상자 공모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한민국창조지식인대상에서 국제우호증진대상을 수상한 히스 로얄 하이니스 파하드빈 무끄르 빈 압둘라지즈 알 싸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KECI

오는 28일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창조지식인대상이 수상자를 공모한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창조지식인대상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지식 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환경에너지기술(N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문화 콘텐츠가 융합돼 창출된 하이텍처(Hi-tech-ture) 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선점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조산업개발의 신 지식인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은 이에 발맞춘 각 분야의 새로운 지식인들을 선정해 그 노력을 인정하며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정치, 정보기술, 생명공학, 금융, 관광, 교육, 음악, 영화, 디자인, 인문학, 철학, 귀농산업 등 총 46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알 허마스 글로벌(Al Hermas Global) 그룹의 히스 로얄 하이니스 파하드빈 무끄르 빈 압둘 라지즈 알 싸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국제우호증진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제2회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 최종 후보자 모집은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hongjs@mhj21.com)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단 심사를 통해 다음달 24일 발표, 개별 통보된다. 본 시상식은 다음달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 070-7813-1601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크린토피아_안성 ‘의료전문세탁공장’ 전경. /크린토피아

“의료세탁, 이젠 맡기세요”

크린토피아, 전문서비스 론칭

국내 최대 세탁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가 의료 전문 세탁서비스를 12월 론칭한다.

크린토피아는 경기도 안성시에 국내 최대인 2만5000㎡ 규모의 의료기관세탁물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의사, 간호사의 가운과 환자복, 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료세탁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크린토피아 의료전문세탁공장은 의료세탁물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공간을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분리 운영한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20여 년간 축적된 크린토피아의 세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위생 관리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의료기관세탁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의료세탁서비스’를 론칭했다”며, “국내 최초로 세탁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해 가정세탁 서비스를 혁신했던 것처럼, 의료세탁 분야에서도 1위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죠스떡볶이’도 배달됩니다

배달전용 세트메뉴도 선봬

‘죠스 오토바이가 떴다.’

떡볶이 브랜드 죠스떡볶이가 고객 편의를 위해 배달 서비스인 ‘죠스 딜리버리’(사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죠스떡볶이는 배달앱 활성화 등으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4개월 전부터 일부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죠스떡볶이는 시범서비스에 대한 호응에 따라 이르면 12월 초부터 배달 지역을 전국 129개 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달서비스는 ‘죠스 딜리버리’로 명명했다.

주문과 배달이 용이하도록 배달 세트 메뉴도 구성했다. 배달 세트 메뉴는 주요 메뉴인 매운떡볶이, 진짜찰순대, 튀김, 부산어묵에 쿨피스를 추가한 ‘3인 세트’부터 ‘패밀리 세트’까지 3종으로 구성된다. 3인 세트부터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에 따른 고객 부담 비용이 건당 2000원 발생한다.

죠스떡볶이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가정의 조리 시간 감소, 편리추구 증대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춰 ‘죠스 딜리버리’를 도입하게 됐다” 며 “배달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은 만큼 전국의 모든 죠스떡볶이 매장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설빙이 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인 방콕에 태국 1호점 씨암점을 오픈했다. /설빙

설빙, 태국 공략 가속도

방콕 씨암점 문 열어

설빙이 아시아 대표 관광지인 태국에 입성했다. 설빙은 지난 28일 태국 1호점인 ‘설빙 방콕 씨암점’을 오픈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태국 진출을 위해 설빙은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빙타일랜드’를 설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설빙은 방콕과 파타야, 치앙마이, 후아힌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해 내년말까지 태국 내 50개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태국 1호점인 ‘설빙 방콕 씨암점’은 방콕 시내 중심가인 씨암스퀘어 초입에 총3층(479㎡), 200석 규모로 마련됐다.

설빙 김현범 부사장은 “태국을 설빙이 아시아 시장에서 파워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비뇨부인과 질환’이 궁금할땐…

이화의료원 이사라 교수, 질환기본서 번역 출간

이화여대 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이사라 교수(사진)는 그동안 쌓아온 비뇨부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대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와 함께 ‘임상 골반저 초음파 검사: 골반저 2D/3D/4D 초음파-기초부터 응용까지(원제: Practical pelvic floor ultrasonography)’를 번역,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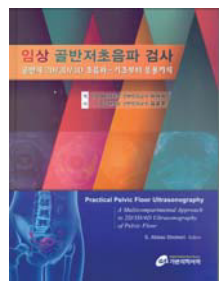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도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등 비뇨부인과 질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비뇨부인과 질환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골반저 구조가 상세히 서술돼 있다.

또한 질병과 그 치료법까지를 총망라해 기본 지식부터 고급 지식까지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특히 골반저의 구획별로 질환을 분류해 서술했고 각 질환별로 실제 환자의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한 초음파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담았다.

임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자 증례들도 포함하고 있어 평소 비뇨부인과 질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사라 교수는 “이 책은 골반저 구조와 질환에 대한 초음파적 이해에 대해 기초부터 고급 응용까지 총망라해 비뇨부인과를 처음 접하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외과의와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초음파를 임상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기본서가 될 것”이라며 “저자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을 번역하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농산물 전문 ‘두레미담’ 서울대2호점 문 열어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11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농산물 전문식당 ‘두레미담’ 서울대 2호점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융복합 먹거리 장터·쉼터라는 컨셉으로 ‘식당 두레미담’과 함께 ‘카페 두레미담’, 농협하나로마트 서울대점을 함께 운영한다.

두레미담 서울대점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으로 운영되며 메뉴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뷔페식과 차림식으로 구성됐다. /김성현 기자 minus@

전국의 ‘문학 꿈나무’들에 희망을

김가네 문학상, 내년 3월까지 공모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김가네와 한국문인협회가 ‘제1회 엄마의 사랑, 김밥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내년 3월 31일까지며 소풍, 운동회 등 특별한 날 엄마의 김밥에 담긴 사연을 시나 수필로 작성해서 김가네 본사로 우편(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로 439 김가네 빌딩)접수하거나 전국 가맹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시는 2편 이상이며 수필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분량으로 제한한다.

시상식은 내년 5월 8일이며, 총 500만원의 상금이 준비돼 있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입회해 문단에 데뷔하는 특전이 부여된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와 수필을 사랑하는 모든 문학 꿈나무들에게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한국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관광公-호텔 컨시어지 손잡고 ‘K스마일’로 친절한국 알린다

한국관광공사와 사단법인 한국컨시어지협회는 K스마일 확산 및 2018 세계컨시어지협회 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행사를 지난 26일 개최했다(사진)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3회 한국컨시어지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컨시어지협회는 K스마일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또 오는 2018년 세계컨시어지협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K스마일 캠페인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과 범국민 친절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친절 캠페인이다.

한편, 세계컨시어지협회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했으며 전 세계 약 60개국 4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인정받은 세계컨시어지협회 회원임을 알리기 위해 유니폼 상단 재킷에 황금 열쇠 뱃지를 달고 근무한다. 한국컨시어지협회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해 2006년 39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2007년 아시아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해외 여행에서 어떠한 관광매력보다도 현지인들의 친절한 환대가 가장 큰 관광매력“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는 최접점에서 감동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계신 컨시어지들이야말로 바로 K스마일 홍보대사”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대학 졸업 후 3년째 무직… 어떤일을 할까요 부동산분양 등 자유로운 직장이 적합할 듯

부진즉퇴 남자 87년 6월 23일 양력 1시 5분

Q 대학교 졸업 후 3년째 무직입니다. 전공은 경영이고 복수전공은 체육입니다. 취업하기에는 전공지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1년 공부하고 취업해야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한 것을 내일에 가서도 고칠 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후회하면서도 저녁에는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되어 3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취업사이트를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어 도전을 못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요? 직업 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직업·수명·사랑·돈·비·바람·눈내림·산·별·들의 움직임 등등 동양 술학(術學)의 모든 영역은 오행(五行) 팔괘(八卦) 구성(九星)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개인이나 자연의 기(氣)를 분석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편적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물의 형상을 두고 오행으로 구분하는데 기의 흐름을 눈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알더라도 행하는 자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활의 변화나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하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만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 있어서도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거나 선택 할 때도 지피지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귀하의 사주구조는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이며 '산위에 산'이니 태산입니다. 술토(戌土) 천문성(天門星)이 들어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집이 센 편인데 추진력의 기운이 부족하여 진취적이질 못하는군요. 어느 면에서는 신의가 있지만 생각에 무게가 실려 자연 가정이나 자신의 앞가림에는 소홀하기 쉽고 생각만 참견되어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 합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조직적이고 통제적인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면 토산품이나 부동산분양업처럼 시간적으로 다소 자유로운 직장도 괜찮습니다.

귀문살(鬼門殺:구신이 들락거림)이 동하지만 앞으로는 다소 자유스러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니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사주상담을 하는 것은 피흉취길(避凶取吉)하는 것이므로 사주상 운이 좋을 때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1일 (음 10월 2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60년생 망상에서 빠져나오세요. 72년생 조신하게 행동하세요. 84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소 49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되는 시기입니다. 61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 입니다. 73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85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귀하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62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4년생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86년생 동료와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토끼 51년생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63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 입니다. 75년생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87년생 업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용 52년생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64년생 스스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76년생 귀하의 기운에 주위가 압도됩니다. 88년생 노력에 결실이 있겠습니다.

뱀 53년생 긴장을 풀지 마세요. 65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77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습니다. 89년생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습니다.

말 54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66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8년생 지출을 줄이세요. 90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양 55년생 좋은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면 안됩니다. 67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79년생 윗사람과 의논하면서 일 처리를 진행하세요. 91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68년생 어려운 일은 친구와 의논하세요. 80년생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92년생 서두르면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닭 57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69년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81년생 금전운이 길합니다. 93년생 큰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개 58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합니다. 70년생 동남쪽이 길방입니다. 82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시비하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71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중중합니다. 83년생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5년생 지금이 바로 때 입니다.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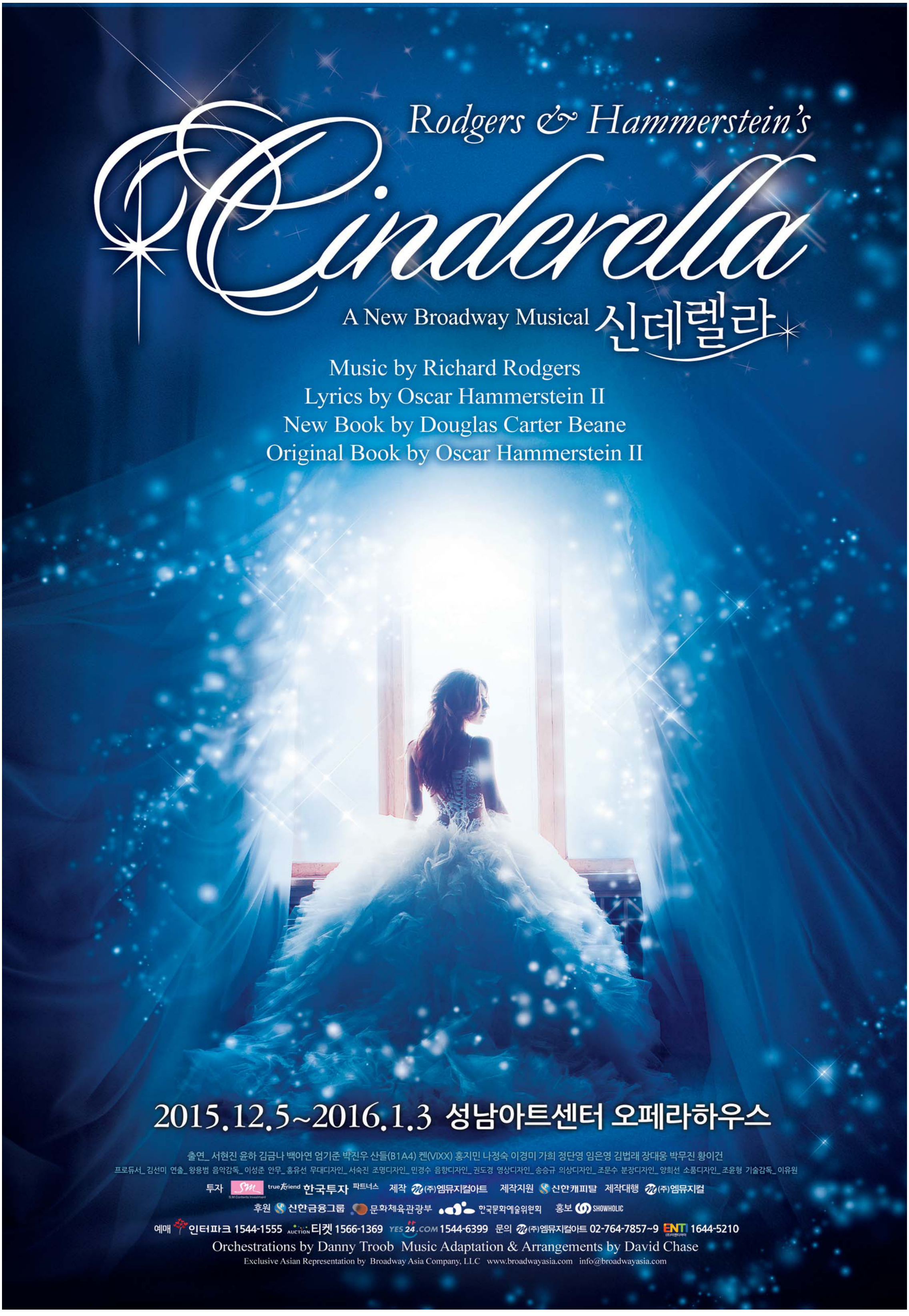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8	9	1	3	6	2	4	7	5
5	2	6	4	8	7	1	3	9
4	3	7	9	5	1	8	6	2
7	6	4	5	9	8	2	3	1
9	1	3	7	2	4	5	8	6
2	5	8	1	3	6	7	9	4
1	4	9	2	7	5	3	6	8
6	7	5	8	4	9	1	2	3
3	8	2	6	1	3	9	4	7

7	4	2	6	3	8	1	9	5
5	2	9	1	4	7	8	3	6
9	1	3	5	2	6	4	7	8
2	5	8	9	1	3	6	4	7
4	3	7	2	6	5	9	8	1
6	9	1	4	7	8	5	2	3
1	4	9	7	5	2	3	6	8
8	7	6	3	9	1	2	5	4
3	8	5	6	2	4	7	1	9

		2	6		5			
			8					3
1	4						5	
		8			6		9	4
9			7		4			6
7	6		5			2		
	3						6	2
5					7			
			3		2	4		

		6					7	1
				9	7		5	
	2	3	4	1				
	4	5			1			
				8				
			2			7	6	
				7	2	1	8	
	8		1	4				
5	9					2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김금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Contents Investment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

영화 미리보기

/장병호 기자

■ 스윗 프랑세즈

전쟁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다.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이성과 양심을 지키며 야만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지독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믿음이다.

'스윗 프랑세즈'는 전쟁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 바로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영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 이렌 네미로프스키가 쓴 동명의 미완성 유작 소설이 원작이다. 이렌 네미로프스키는 5부작으로 구상한 소설 중 2부까지만 완성한 뒤 1942년 나치에 붙잡혔다. 아우슈비츠에서 39세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영화는 2004년 뒤늦게 발표된 작가의 소설 중 2부 '돌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몄다.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뷔시다.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루실(미셸 윌리엄스)은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 장교 브루노(마티아스 쇼에나에츠)를 자신의 집에 들이게 된다. 타인이면서 적인 남자와의 뜻하지 않은 공동생활에 적대감을 느끼던 루실은 그러나 브루노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다.

영화는 루실과 브루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그 속에는 전쟁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마을에 찾아온 젊은 독일군에게 호감을 느끼는 프랑스 여인, 자신의 아내를 탐하려는 독일군에게 분노와 질투를 느끼는 남자,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까지 영화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라본다.

그러나 영화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루실이 바로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루실과 브루노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교감이 있다. 소작농을 매정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불편한 루실, 그리고 전쟁보다는 피아노 연주가 더 좋은 브루노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잠시나마 마음을 나눈다. 그렇게 영화는 전쟁도 사랑과 믿음을 지울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우린 서로의 감정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사랑이란 한 마디조차도…"라는 루실의 대사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15세 이상 관람가, 12월 3일 개봉.

'월드 스타' 짐 벗고 '초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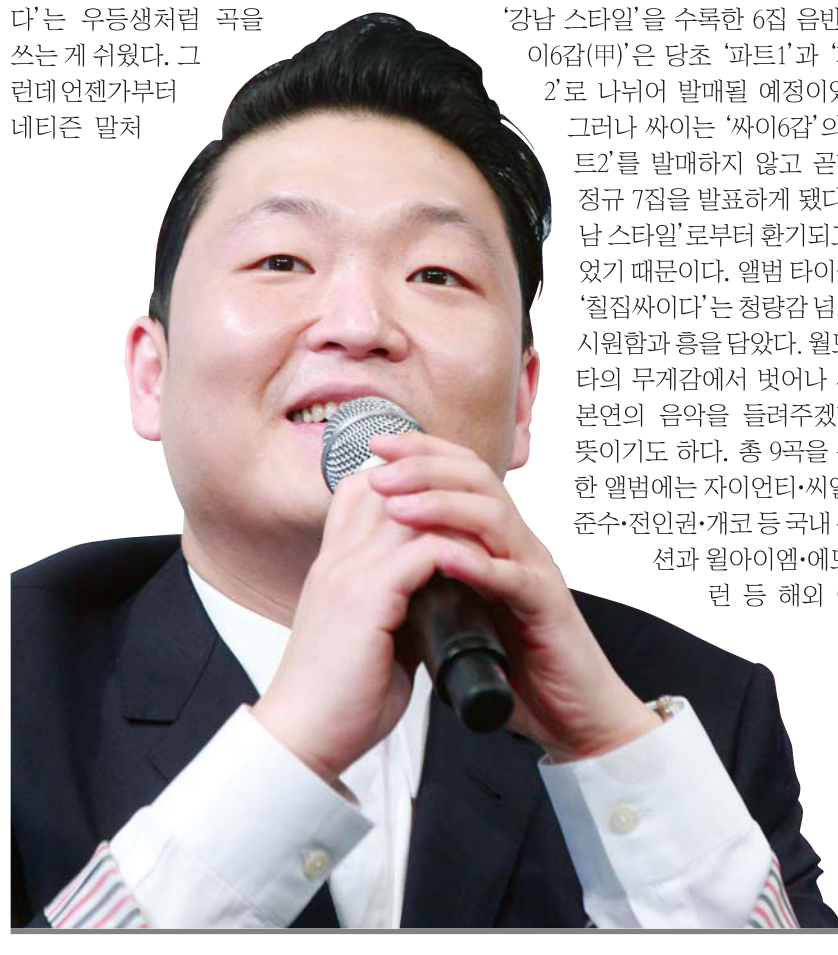
"'강남 스타일'과 같은 행운은 다시 없을 겁니다." 3년 5개월 만에 7집 정규 음반으로 돌아온 가수 싸이(37)의 표정은 긴장된 듯하면서도 홀가분해 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안고 살아온 '월드 스타'의 무게감을 덜어낸 것은 바로 '초심'이었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딴따라'가 된 가수", 그것이 바로 싸이의 그 초심이었다.

스타인터뷰

'칠집싸이다'로 돌아온 싸이

싸이는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 7집 음반 '칠집싸이다' 발매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이는 새 음반의 더블 타이틀곡인 '나팔바지'와 '대디(DADDY)'의 뮤직비디오가 최초로 공개했다. 새 음반 준비 과정의 이야기도 과감없이 털어놓았다.

싸이가 국내에서 새 앨범을 내기까지는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한때는 '공부가 제일 쉽다'는 우등생처럼 곡을 쓰는 게 쉬웠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네티즌 말처럼 중압감과 스트레스, 혹은 '미국병' 때문에 곡 쓰는 게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 있는 많은 사공을 한 명으로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알려진 대로 싸이는 2012년 '강남 스타일'의 빅 히트로 '월드 스타'의 명성을 얻었다. '강남 스타일'은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며 싸이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월드 스타'의 무게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발표한 '젠틀맨'과 '행오버'는 '강남 스타일'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해외 활동을 마친 싸이는 올해 초부터 대학 축제 무대에 서면서 다시금 자신의 초심을 돌아봤다.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칠집싸이다'로 이어졌다.

'강남 스타일'을 수록한 6집 음반 '싸이6갑(甲)'은 당초 '파트1'과 '파트2'로 나뉘어 발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싸이는 '싸이6갑'의 '파트2'를 발매하지 않고 곧바로 정규 7집을 발표하게 됐다. 강남 스타일'로부터 환기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앨범 타이틀인 '칠집싸이다'는 청량감 넘치는 시원함과 흥을 담았다. 월드 스타의 무게감에서 벗어나 싸이 본연의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 9곡을 수록한 앨범에는 자이언티·씨엘·김준수·전인권·개코 등 국내 뮤지션과 윌아이엠·에드 시런 등 해외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이번 타이틀곡은 '나팔바지'와 '대디(DADDY)' 두 곡이다. '나팔바지'는 70~80년대 복고적인 느낌의 댄스곡이다. 올해 초 대학 축제 무대를 찾는 가운데 완성된 "쉽게 만든 노래"다. 반면 '대디(DADDY)'는 지난해 3월 완성된 곡으로 오랜 작업 끝에 선보이게 됐다. 하지원, 유희열, 씨엘 등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는 '강남 스타일'부터 이어지는 B급 정서를 담고 있다. 싸이는 "업계의 정설은 어렵게 만든 노래는 잘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노래가 어떤 반응을 얻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해외보다 국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싸이는 "'강남 스타일'이 해외에서 얻어걸린 케이스고 '젠틀맨'이 처음부터 해외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번 '칠집싸이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얻어걸릴까?'라는 느낌"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또한 빌보드 차트 순위에 대해서는 "'강남 스타일'과 비교한다면 어떤 아시아 가수도 그 스코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초심으로 돌아온 싸이가 대중에게 바라는 것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의 음악을 듣고 즐겨주는 것이다.

"사실 가수가 꿈은 아니었어요. 작곡가가 되고 싶었지만 곡이 안 팔리는 게 아까워서 가수로 데뷔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5년째 가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 된 적도 많았지만 굉장히 혼난 적도 많았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때도 묻었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스타일'과의 비교는 정중히 사양할게요(웃음). 대신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9곡을 골고루 섭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겨울 맞이 동태 탐구생활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생선 요리는 비린내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힘들다. 그러나 동태는 내장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매력적인 식재료다. 비린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동태 손질법을 소개한다. 칼칼하고 시원한 동태찌개부터 바삭한 맛이 일품인 동태튀김까지 다양한 동태 요리법도 공개한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40 생텀	05:00 들개들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05:10 충전 힐링 라이프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최고의 사랑	06:00 현장토크쇼 TAXI (재)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7: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7: 30 내 아내의 모든 것	06: 50 좋은 날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30 JTBC NEWS 아침 &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10 좋은아침		08:50 문제적 남자		09:1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00 SBS 뉴스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09:40 성범죄수사대:SVU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0:30 SBS 생활경제	10: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0: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시즌16 (재)	
11: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00 오 마이 비너스 (재)		11:10 청담동 스캔들	11: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20 거룩한 계보
11:55 안녕 우리말 (재)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1:50 SBS 12뉴스				
12:00 KBS 뉴스 12	12:05 사람과 사람들 (재)	12:00 MBC 정오뉴스		13:10 비정상회담 (재)	12:10 명단공개 (재)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05 생생정보 스페셜	12:20 TV속의 TV	12:45 불타는 청춘 (재)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00 KBS 뉴스타임	13:20 문화사색	14:00 영재발굴단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3:10 응답하라 1988 (재)	13:20 명량	13:40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5:00 3시, 뉴스브리핑				
14:00 2015 K리그 대상 시상식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4:30 꾸러기 식사교실	16: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15:50 4시 사건 반장	15:00 응답하라 1988 (재)		16:20 스톤
15:05 2015 코리언 지오그래픽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00 MBC 뉴스				15:40 내셔널 트레져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10 똑?똑! 키즈스쿨	16:30 토닥토닥 꼬모		16:50 쓸모있는 남자들 (재)		18:30 진주만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5:55 꼬마돌 도도	17: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20 시사진단	17:00 VJ 특공대(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5 생방송 투데이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8:10 문제적 남자 (재)	18:10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	
19:00 KBS 뉴스 7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20 돌아온 황금복	19:55 JTBC 뉴스룸	19:40 콩트앤더시티 (재)		
19:30 이웃집 찰스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20:40 현장토크쇼 TAXI	20:30 다이하드 4.0	
20:25 우리 집 꿀단지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스타!킹	21:30 유자식상팔자	21:40 집밥 백선생		22:00 딜리버리 맨
21:00 KBS 뉴스 9	20:55 1 대 100	21:30 리얼스토리 눈		22: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2:00 시사기획 창		22:00 화려한 유혹	22:00 육룡이 나르샤		23:00 풍선껌	23:00 멘탈리스트 시즌7	
23:00 KBS 뉴스라인	22:00 오 마이 비너스	23:10 PD수첩	23:15 불타는 청춘	24:2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24:20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재)		24: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05 MBC 뉴스 24					
24:35 독립영화관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15 MBC 100분 토론	24:35 나이트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업강의 실천이 필요한 때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참 오랜시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해왔다. 새터민부터 소위 교정기관이라 불리는 교도소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은 알려주려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다보니 여러 장소에서 몇 번씩 만나는 수강생들도 꽤 있다. 소위 창업강의 중독자(?)들이다.

며칠전에 모 박람회 세미나장에서 만난 박모씨가 대표적이다. 벌써 창업 준비만 5년째란다. 아마도 내 강의만 열 번이상을 들었을게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 훌륭하다.

그는 이제 성공을 위한 창업 준비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이래서 창업하면 안되는데"라고 곱씹고 있었던 것.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다.

특히나 '목숨형창업(생계형창업)'이 현실인 최근의 창업 형태는 더욱 그러한 조심과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창업은 자신과의 승부가 먼저다.

소위 대박가게의 공통적인 특징 중 최고의 경쟁력은 운영자의 상품성이다. 개인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이템도, 입지분석도, 경쟁점현황도, 창업자금보다도 먼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상품일 준비가 돼야한다.

샌드위치&커피전문점 '멜랑제'를 운영하는 정주백씨의 경우는 창업교육이 성공의 밑거름이 돼 직영점만 네 개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샌드위치의 실용성과 표적고객을 철저히 분석한 후 장시간 교육을 받고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었다. 창업교육에서 배운 분석과 기획, 준비과정을 몸소 실천해 성공한 사례다, 교육보다 중요한 실천력이 성공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창업 교육은 오히려 창업자에게 독이다. 시작도 하기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그에 따른 도피의 수단을 강구하려한다. 창업은 남이 강요하는것이 아니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있던가.

자영업자의 평균 업소운영기간은 2.3년이다. 또한 안정적 수익을 올리기위한 최소의 운영기간은 10개월이다.

시간대별 매출이 다르듯이 요일별, 월별, 계절별, 매출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일회일비로는 승부를 볼수 없는게 창업이다.

어려운 시기이다.

메르스등 외부적 환경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경기상황의 심각한 저점현상은 그 어느해 보다도 2015년의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밖에 없이 창업을 하고 점포를 운영해야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강의를 하나 더 수강하기 전에 나 스스로 얼마나 준비됐는지 점검하고 실천해야하는 시점이다. 도전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없다.

창업은 대박을 꿈꾼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창업에 거름으로 더해질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인터넷은행, 철저한 해킹 대비를

기자 수첩
이 정 필
〈파이낸스&마켓부〉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뱅크와 KT가 이끄는 K뱅크의 윤곽이 잡혔다.

양사는 11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국민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하는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금융거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앱투앱 결제로 수수료를 낮추고, 여기에서 오는 혜택을 판매자와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게 골자다.

K뱅크는 빅데이터 신용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내년에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양사의 비전은 무점포·비대면 영업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운영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용을 절감해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는 낮추는 한편 10%대 중금리를 선보이며 우리 금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장단이 있듯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산분리 안건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해킹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IT(정보기술) 강국이지만 글로벌 해킹보안에 관한한 방어 약체로 분류된다.

해외 실력자들이 수 분 만에 한국의 정부부처를 해킹하며 놀이터로 여겼다는 보도나, 국내에서 터진 카드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일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08~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악성코드 감염률(CCM)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카오와 KT에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양사는 철저한 보안을 자신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시 전까지는 방어벽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에도 자신하다 해커에게 농락당한 기관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한 회사원이 야근 후 사우나에서 자다가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는데 수백만원이 인출됐다는 기사가 내년 이맘때쯤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roman@metroseoul.co.kr

종근당고촌재단, 10번째 고촌상 시상식

결핵퇴치 앞장 선 나탈리아 베즈니나 등 3인 수상

총 10만 달러 상금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 11월 30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 10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이날 시상식에서 결핵퇴치와 결핵환자 관리에 노력한 공로로 러시아 의학박사 나탈리아 베즈니나와 케냐 간호사 나오미 완지루, 페루 보건단체 아스팟 페루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 총 10만 달러의 상금을 지원했다.

나탈리아 베즈니나 박사는 러시아 교도소에 직접관찰치료법(DOTS)을 최초로 도입해 수용자들의 결핵 치료에 기여했으며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동 수상자인 나오미 완지루는 케냐에서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 인식 개선에 기여해 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비영리 보건단체인 아스팟 페루(ASPAT-Peru)는 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결핵 예방과 관리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숙식제공, 재정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제10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오미 완지루,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 나탈리아 베즈니나 박사, 아스팟페루 멜레치오 메이타 코타 대표. /종근당고촌재단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촌상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퇴치에 앞장선 18개 단체와 개인을 선발해 지금까지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원했다"며 "결핵퇴치에 평생을 이바지한 고 이종근 회장의 유지를 잇는 더욱 많은 지원과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촌상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세계 결핵·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한 국제적인 상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社說

수출·내수의 균형과 조화

우리나라가 올해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합계는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올해는 수출부진으로 말미암아 972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생산도 저조하다. 통계청이 11월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반전된 것이다. 산업생산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다.

이처럼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1조달러선이 다시 무너지고 산업생산이 감소로 돌아섰다니 걱정된다. 그렇지만 수출 기업과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비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도 높아졌다. 특정기업 특정 품목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내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인 것은 더 바람직하다. 특히 10월중 소매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내수는 늪에 빠진 반면 수출만 날아오르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는 듯하다. 소수 대기업에 매달리던 수출체질도 조금씩 바뀌어간다. 10월 소비가 늘어난 것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이 작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계기로 내수산업과 국내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는 수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1조 달러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불균형을 개선하면서 착실하게 바닥을 다진 후 더 높게 날아오르면 된다. 내수를 더욱 보강하고 우리 경제의 힘을 비축하면서 더 큰 도약을 꿈꿔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보면 이런 과제와 가능성이 동시에 엿보이니, 정책당국도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인사

◇메트로미디어 △ 유통&라이프부장 부국장 김승중 △ 산업부장 부국장대우 윤휘종 △ 편집부장 직무대리 이광희

◇현대증권 (임원) △Trading본부장 임한규 (부장) △채권마케팅부 김종길 △채권상품부 박용진

◇삼양그룹 (승진) △이탁헌 법무팀장(상무) (보직변경)△김영환 삼양홀딩스 CTO(부사장) (삼양사 승진) △조성환 화학연구소장(상무) △조성근 울산1공장장(상무) (〃보직변경) △김도 AM BU 영업총괄(상무) △고영성 아산공장장(상무) (삼양제넥스 승진) △이종수 진황도 총경리(상무) △이병준 삼양사 울산2공장장(상무) (〃보직변경) △송자량 삼양사 영업총괄(상무) △최낙현 삼양사 Culture & Global 총괄(상무) △박승구 삼양사 인천1공장장(상무) (삼양데이타시스템 승진) △박상훈 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상무)

◇대신금융그룹 (대신증권 전무 승진) △배영훈 Wholesale사업단장 △장우철 IB1부문장 △신인식 금융주치의사업단장 △권인섭 금융주치의 추진본부장 △하창룡 강남지역본부장 △박동현 서부지역본부장 (〃상무 신규선임) △정재중 강북지역본부장 △이정화 동부지역본부장 (〃이사대우 신규선임) △이환목 구조화상품본부장 (〃사간전보) △김범철 미래전략담당 전무 △이문수 리스크관리본부장 이사대우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신규선임) △구희진 (〃상무보 신규선임) △정만성 퀀트운용본부장 (〃이사대우 신규선임) △권용범 경영지원그룹장 (대신에프앤아이 상무 신규선임) △이득원 경영기획본부장 (대신저축은행 상무 신규선임) △한준철 기업금융본부장 △박경제 영업본부장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 김홍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송락현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 △이창근 기후변화연구본부장 △김현구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장 △김상도 청정연료연구실장 △박재현 저탄소공정연구실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이용희 △월성원자력본부장 전휘수 △한울원자력본부장 이희선 △한국전력공사 파견(한전 UAE본부장) 최성환

◇티맥스소프트(상무보 승진) △박정권 △김장수 △남민웅 △황성오 △이용재 △김대인 △배준환 △하은주

◇제주일보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국장) 김승종 △편집국장 고동수 △편집국 국장대우 박상섭

◇자생의료재단 (병원장)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울산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목동자생한방병원 정벌 △안산자생한방병원 박종훈 △창원자생한방병원 송주현

◇사학연금(1급 승진)△김경태 인재경영실장 △현경일 서울지부장 △손규준 감사실장 (2급 승진) △유 청 급여관리팀장 △장철호 재해보상팀장 △조경제 재해보상팀 △박동준 강원지부 (전보) △이영조 기획조정실장 △주천술 연금운영실장 △김욱경 투자전략팀장 △김용준 가입자관리팀장 △김영철 운용지원팀장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장 겸 산업기술융합대학원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동기 △보건진료소장 손홍문 △조선대병원 부원장 박찬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교육운영본부장 신현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장 김주엽 △생활협동조합 본부장 곽철원 △IPP허브사업단 사무국장 엄익기 △능력개발교육원 연수사업본부장 양태연 △전산정보팀장 박준범 △취업지원팀장 최영윤 △기획예산팀장 한인석 △전략평가팀장 김승영 △입학홍보팀장 안병천

부고

▲ 김효정씨 별세, 김신태(경인일보 지역사회부 차장)씨 부친상 = 30일 오전 6시 29분, 경기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2월 2일 오전 11시, 031-611-1144

▲ 이숙자씨 별세, 홍정민(새누리당 강창희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 = 29일 오후 8시50분,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42-611-3980

▲ 노봉선씨 별세, 손오익씨 부인상, 손민호(한국은행 국제협력실 전문부실장)·순호(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서무과장)·영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석호(미국 대사관 근무)·점복·영주씨 모친상, 김정은·전정숙·라인옥(학수정 노인복지 센터장)씨 시모상, 이덕기·김영준씨 장모상 = 29일, 서울아산병원 33호,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10-2686-7471

▲ 서말구씨 별세, 서영준(뉴스토마토 기자)씨 부친상 = 30일 오전 4시,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월 2일, 010-9449-643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박석민, 96억 '잭팟' 테임즈와 한솥밥

NC와 4년 86억+옵션 10억 계약
"팬에겐 송구… 어디서든 보답할 것"
정우람 84억·심수창 13억에 한화행

2015시즌 자유계약선수(FA) 이동이 시작됐다.

야수 중 '최대어'로 꼽힌 3루수 박석민(30·사진)이 96억원을 받고 NC 다이노스 품에 안겼다. 투수 최대어 정우람(30)은 한화 이글스와 4년 총 84억원(계약금 36억원, 연봉 12억원)에 계약했다.

NC는 11월 30일 삼성라이온스 박석민과 계약 기간 4년, 계약금 56억원과 연봉 30억원을 포함한 보장금액 86억에 플러스 옵션 10억원 등 총 96억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다.

NC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며 든든한 3루수인 박석민을 영입, 취약점 중 하나를 지웠다. 이로써 박석민이 옵션을 채우게 되면 역대 최고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액 기준으로 FA 최고 계약 규모는 KIA 타이거즈 투수 윤석민의 4년 총 90억원이다.

야수 중에서는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최정(4년 총 86억원)이 최고였다. 그러나 옵션을 더하면 박석민이 역대 최대 규모 FA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박석민은 "먼저 나를 성장시켜 준 삼성과 대구라는 무대, 팬들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어디에서든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탄한 수비에 장타력를 갖춘 박석민은 올 시즌 135경기에서 타율 0.321, 26홈런, 116타점을 기록했다. 통산 기록은 1027경기에 타율 0.297, 163홈런 등이다.

NC는 "시즌을 마치고 전력강화 회의를 했다. 팀을 강하게 키우는 데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FA 영입 대상을 검토해왔다"며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박석민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는 이날 "정우람과 FA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4년 84억원은 윤석민에 이은 역대 FA 투수 두 번째 초대형 계약으로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장원준과 같은 금액이다. 또 불펜 투수로는 지난해 안지만이 삼성과 한 4년 65억원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

정우람은 2004년 SK 와이번스에 2차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입단했다. 2005년 3승 1패 1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불펜 핵심 선수로 떠오른 정우람은 2007년 김성근 감독이 SK에 부임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좌완투수인 정우람은 2008년 25홀드, 2011년 25홀드를 기록하며 이 부문 타이틀을 차지했다.

오른손 타자 바깥쪽으로 휘며 떨어지는 날카로운 체인지업이 위력을 더하면서 정우람은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불펜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우람은 "SK 구단 관계자와 팬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전 소속팀에 대한 예의를 표하며 "내 인생에 첫 FA 기회를 맞이했고, 나에 대한 가치 평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우완 심수창(34)과도 계약했다. 4년 13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2억5000만원)의 조건이다. 심수창은 2004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11시즌 동안 268경기 등판 33승 61패 16홀드 10세이브 평균자책점 5.29를 기록했다.

심수창은 2004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11시즌 동안 268경기 등판 33승 61패 16홀드 10세이브 평균자책점 5.29를 기록했다. 심수창은 "FA로 계약한 만큼 내년 시즌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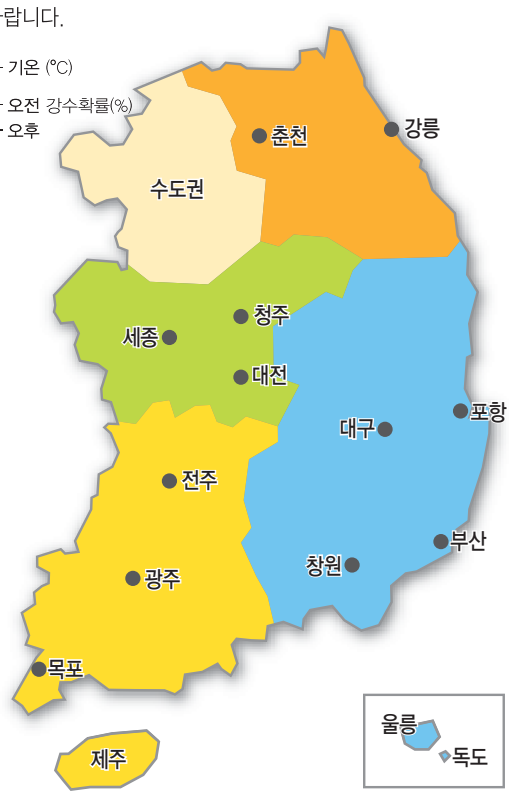
해뜸/07:27 | 해짐/17:14

12월 1일
화요일 (음력 10월 20일)

새벽녘 안개 걷히면 전국에 햇살 쨍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3/8	10	10
강릉	2/11	0	10
세종	-3/10	0	10
대전	-1/12	0	10
청주	-1/11	0	10
광주	2/14	0	0
전주	0/13	0	10
목포	2/12	0	0
제주	7/15	10	20
대구	1/13	0	10
창원	4/14	0	10
포항	3/13	0	10
부산	6/16	0	10
울릉	4/7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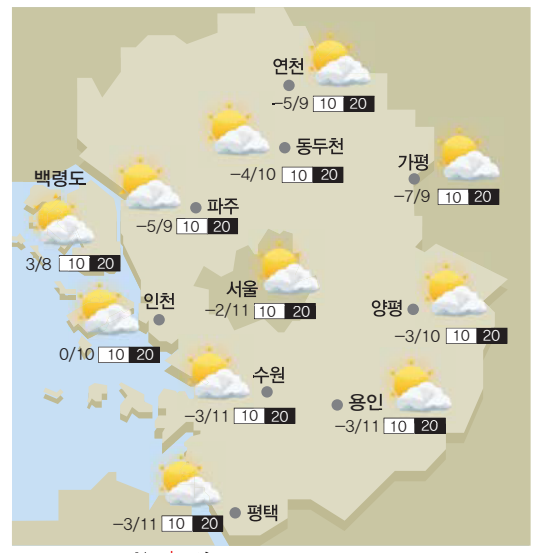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1 ~ -2℃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1:46/ - : -	05:27/17:49
인천	08:04/20:31	02:17/14:15
울산	10:39/23:21	04:41/16:52
군산	06:25/18:57	01:11/13:02
목포	05:27/18:10	10:38/23: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손흥민, 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

한국선수로는 첫 수상 쾌거
선수상엔 UAE '칼릴' 차지

손흥민(23·토트넘·사진)이 2015년을 가장 빛낸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해외파 선수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5 AFC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시아 해외파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2년 제정된 올해의 아시아 해외파 선수상은 AFC 가맹국 소속 선수 중 한 해 동안 해외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시아 축구 선수를 뽑는 상이다.

손흥민은 지난 8월 아시아 선수로서 최고 이적료인 2190만 파운드(약 396억원)를 받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했다. 주전 경쟁을 이겨내며 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된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 75분 동안 날카로운 몸놀림을 보였다.

한국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손흥민과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각각 3위에 올랐다.

한편 올해의 선수상은 아랍에미리트의 아흐메드 칼릴(24·알 아흘리)에게 돌아갔다. 남자부 올해의 팀으로는 2015 아시안컵 정상에 오른 호주가 선정됐다. 여자부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일본이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삼성 '원정도박' 임창용 방출

재계약 대상 보류선수 명단 제외
檢 소환조사 알려지며 은퇴 위기
윤성환·안지만은 수사 지켜보기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39·사진)이 사실상 방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월 30일 2015년 KBO 리그 소속선수 중 2016년 구단별 재계약 대상인 보류선수 551명의 명단을 각 구단에 공시했다.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창용은 이날 삼성 라이온즈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실상의 방출이다.

임창용은 지난 27일 2차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 삼성이 짠 4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다. 당시 몇 구단이 임창용의 지명을 고민했으나 25일 임창용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이로써 임창용은 문서상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임창용을 영입할 구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은 한국프로야구에서 114승 72패 232세이브를 거두고 일본과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경험한 베테랑이다. 그러나 야구 외적인 문제로 은퇴 위기에 몰렸다.

원정도박 의혹으로 임창용과 함께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윤성환과 안지만은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두 선수는 비교적 젊은 삼성 마운드의 핵심전력이다. 또한 아직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를 내리겠지만 지금은 방출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방출을 요청한 외야수 강봉규, 시즌 중 은퇴를 선언한 포수 진갑용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출신 좌타자 최희섭도 그라운드를 떠난다. 최희섭은 시즌 종료 뒤 KIA 타이거즈 구단과 면담을 하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KIA는 내야수 박기남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뺐다.

한화 이글스도 1군을 경험한 선수 상당수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내야수 한상훈과 투수 박성호, 이동걸, 허유강, 포수 이희근, 외야수 이양기, 오윤 등이 방출 통보를 받았다.

NC 다이노스는 이미 은퇴를 선언한 손민한, 박명환, 이혜천과 함께 2000년 신인왕 이승호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장병호 기자

'한국 육상의 전설' 서말구 교수 별세

한국 100m 기록을 무려 31년 동안 보유했던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1월 30일 별세했다. /연합뉴스

31년 간 100m 한국 신기록 보유

한국 100m 기록을 무려 31년 동안 보유했던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30일 "서말구 교수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향년 61세.

서말구 교수는 1979년 멕시코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34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김국영이 2010년 6월 7일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23을 기록할 때까지 31년 동안 한국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서말구 교수는 2009년 한국 육상 대표팀 총감독으로 부임해 여호수아 등 단거리 선수들을 집중 육성했다. 2010년 말 뇌경색을 앓았지만 최근 회복해 다시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서말구 교수는 1984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1987년까지 선수와 트레이너로 일한 이색 경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는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다.

서말구 교수의 빈소는 경기도 분당 차병원에 마련됐다.

/장병호 기자

아마존 프라임에어 구형모델

▲ 2013년 12월 공개된 아마존의 구형 '프라임 에어' 드론의 모습. 드론이 배송할 물건을 장착하고 있다.

아마존의 '뉴 프라임에어' 드론

▶ 아마존의 '뉴 프라임 에어' 드론은 배송지에 도착하면 수직모드로 전환해 착륙장소를 스스로 스캔해 찾아낸다.

신기술의 결정체 뛰는 테슬라, 나는 아마존

홍콩, '무과세'에 테슬라 열풍
등록차 100대 중 3대가 전기차
충전소 수도 1000여개로 급증

아마존, 똑똑해진 신형 드론 공개
위험 스스로 피하는 '안전비행'에
도착 전 "마당 치워달라" 메시지

미국 혁신기업들이 세계의 도로와 하늘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노르웨이에 이어 홍콩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뉴 프라임 에어'는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하늘 쾌속 배달에 성공했다.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해 오염 문제가 심각한 홍콩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붐을 일으키고 있다.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테슬라 모델S는 올해 들어 2000대 가까이가 홍콩 도로를 누비고 있다.

홍콩 당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무과세 정책을 펴고, 전기충전소를 1000여곳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13년까지 100여대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던 전기차는 '테슬라 붐' 이후 전체 등록 자동차의 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전기차 비중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출퇴근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테슬라 모델S는 한 번 충전으로 400㎞ 이상을 달린다. 땅이 좁은 홍콩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성능이다.

테슬라는 앞으로 보급형 차량인 테슬라 모델3을 출시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노르웨이, 홍콩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2년만에 신형 드론인 '뉴 프라임 에어'를 공개했다.

뉴 프라임 에어는 더 커지고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해졌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하늘의 위험을 감지하면서 안전비행을 한다. 도착 몇 분 전에는 고객에게 "곧 물건이 도착한다. 마당을 치워달라"는 메시지도 보낸다. 고객이 '착륙 가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마당 위에서 수직모드로 전환해 착륙지점을 스스로 스캔해 확인한 뒤 내려서 물건을 내려놓는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뉴 프라임 에어는 '시간 혁신자'다. 고객의 주문 즉시 제품을 싣고 수직으로 상승해 비행을 시작한다. 고도는 400피트(122m), 속도는 시속 55~60마일(88.5~96.5㎞)이다. 드론의 자체 화면에는 고도와 높이는 물론이고 도착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분과 초 단위로 표시된다. 주문부터 배송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늦어도 30분 안에 끝난다.

아마존이 배송하는 물건의 85%가 5파운드(2.2㎏) 미만이다. 아마존은 5파운드 미만의 물건을 10마일(16㎞) 내에서 30분안에 배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뉴 프라임 에어는 최대 50마일(80.5㎞)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 SF소설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며 "언젠가 거리에서 우편물 트럭을 보는 것처럼 드론의 배송 비행을 보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계속해서 드론의 신형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용도별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테슬라의 전기차 세단인 모델S가 홍콩의 거리를 누비고 있다. 홍콩에는 2000대 가까운 테슬라 전기차에, 1000여곳이 넘는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53호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스포츠]
FA 박석민,
96억 잭팟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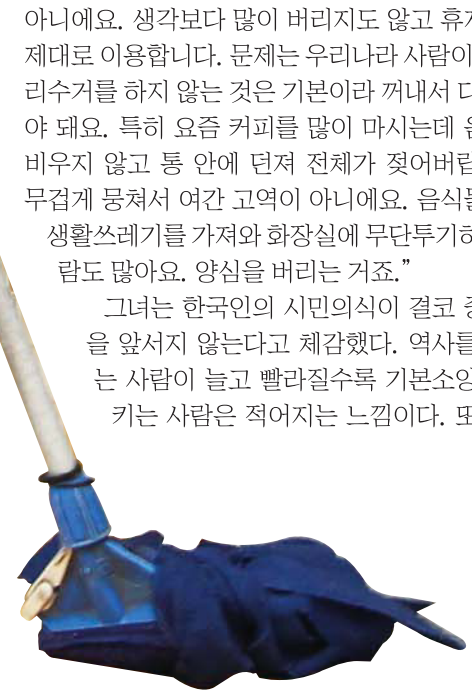
연재만화

14

새벽을 여는 사람들

⑤ 20년간 지하철역 가꿔온 이완순 미화원

새벽 공기 맡으며 출근하면 서울역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은 커피 그냥 버리면 젖고 무거워, 분리수거 안하는 시민의식이 아쉽죠"

양심 버리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많아

찬 공기가 자욱한 11월 30일 새벽 5시 25분. 서울메트로 4호선 미아역엔 벌써부터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리 중엔 20년간 전철역을 청소해온 미화원 이완순씨(60·여)가 서 있었다. 현재 맡고 있는 서울역으로 출근하려고 하루일과를 벌써 시작한 것.

"첫차를 타도 앉아서 못가요. 그만큼 일찍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이제 환갑줄에 들어섰지만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미화원 휴게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교대하는 야간조가 밤새 청소한 후지만 어느새 쓰레기며 오물이 역사 안에 쌓여 갔다. 원래 있을 자리에 당연히 돌아왔다는 듯이.

"인천공항이 연결되면서 이용객이 부쩍 늘었어요. 그만큼 청소할 일도 늘어난 거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게 눈에 보여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중국인이 몰려다니고 시끄러워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버리지도 않고 휴지통을 제대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라 꺼내서 다시 해야 돼요. 특히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음료를 비우지 않고 통 안에 던져 전체가 젖어버립니다. 무겁게 뭉쳐서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음식물이며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화장실에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양심을 버리는 거죠."

그녀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결코 중국인을 앞서지 않는다고 체감했다. 역사를 다니는 사람이 늘고 빨라질수록 기본소양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지는 느낌이다. 또 다른 난관은 노숙인 문제다.

"노숙하는 분들이 야간에 역 안에서 술파티를 벌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박스는 수없이 널려있고. 그리곤 아무데나 소주병을 던지고 대소변을 봐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샤워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매일 치워야 하죠. 역무원과 경찰이 제지해도 그때 뿐이에요. 외국인이 보기에도 안 좋고, 겨울철에 동사 같은 안전사고 문제가 클 텐데. 이런 건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자립해 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현재 1~4호선의 미화원은 서울메트로의 청소업무 자회사인 메트로환경 소속이다. 120개역을 1500여명의 미화원이 관리한다. 서울역의 경우 8명(오전·오후 6명 교대, 야간 2명 고정)이 담당하고 있다. 1000여평의 역사를 2~3명이 맡는다. 급여나 복지는 2013년 재향군인회에서 메트로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한다. 건의사항은 없는지 질문하자 이씨의 동료인 원청실씨(50·여)가 거들었다.

"일할 때 청소차를 끌고 다니는데 역사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항상 사고위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어폰을 꽂고 하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피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피해야 돼요. 불빛이나 경고음 같은 게 청소차에 달렸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묻자 이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시울을 흐렸다.

"아저씨가 안계세요. 20년간 일하면서 남매를 키우고 대학공부까지 시켜 지금은 둘 다 결혼했죠. 손주까지 봤답니다. 이제는 온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침을 맞아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65세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기에 사람들이 깨끗한 역에서 기분 좋게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승객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하면 그게 보람이죠."

그녀는 다시 청소현장으로 향했다. 뒷모습이 멀어지고 빠른 걸음을 내딛는 회사원들이 시야 앞을 대신 채웠다. 그렇게 서울역의 또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